



코로나 백신 접종 1000만명 넘었다 4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13

코스피(10일) ▲ 3224.64 (+8.46P) 코스닥 ▲ 987.77 (+8.98P)
환율(달러당 원화) ▲ 1115.80 (+0.40원) 금리(국고채 3년물) ▲ 1.282% (+0.145%p)

현대차·SK·포스코·효성 “수소동맹으로 강국 도약”

“탄소중립 조기실현” CEO 회동 수소사업 협력·밸류체인 확대 국내기업 투자촉진 전인차 역할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현대차 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이 힘을 합친다. 수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모인 ‘수소기업협의체’를 9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2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은 10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만나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논의했다. 올해 초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은 수소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해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효성그룹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4개 그룹 회장이 회동해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수소기업협의체는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등 3개 그룹이 공동의장을 맡고, 효성그룹을 포함한 4개 그룹이 수소 관련 사업과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기업들의 추가 참여 확대를 건언한다. 7월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9월 중 최고경영자(CEO) 총회를 개최해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수소기업협의체는 CEO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며 정기 총회와 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소 사회 구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4개 그룹은 수소기업협의체 설립 추진과 함께 수소 관련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해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은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수소 사업 관련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확산 및 수소 사회 조기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국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소산업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글로벌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한 4개 그룹 회장과 경영진은 넥쏘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이와 함께 소형화, 출력밀도 향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이동형 발전시스템도 살펴보았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차그룹이 10일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3개 그룹 회장들과 수소기업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의선(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집값의 10% ‘누구나집’ 인천·시흥 1만채 짓는다

與, 시범사업 부지 6곳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1만 호와 유보용지 일부에 58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공급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899호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951호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 910호 △시흥시 시화 MTV(22만6000㎡) 3300호 등으로 총 1만785가구 규모다.

▶관련기사 3면 누구나집은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집값의 6~20%로 10년 임대거주를 한 뒤 최초 입주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누구나집은 집값 6~16%를 내면 건설기간 3년 포함, 총 13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 16%를 내면 거주·분양권 모두 갖는 구조다. 의무임대기간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누구나집 6개 지역은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2기 신도시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등의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돌려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협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정약을 진행하고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정부 허리띠 졸라맬 때 가계는 빛더미

정부 선별지원 고집, 민간 부채 리스크 상승 4분기 GDP比 가계빚 증가 43개국 중 최고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 가능한 43개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민간신용갭도 큰 폭으로 늘어 세계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에 자금이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1일 지난해 4

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전 분기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103.8%를 기록했다. 집계했다. 3분기(101.1%) 사상 처음으로 경제 규모를 넘어선 이래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 부채 증가율은 되레 감소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28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정부가 선별지원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맬 결과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민간부채 신용갭은 18.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16.9%p)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2019년 말(6.7%p)과 견줘서는 11.7%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신용갭이란 명목 GDP 대비 가계와 기업 부채의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 지표로, GDP에서 가계와 기업부채가 차지

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수록 커진다. 통상 신용갭이 2%포인트 미만이면 정상, 2~10%포인트 사이면 주의, 10%포인트를 넘으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한국 민간부채 추이를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증가폭이 선진 5개국의 3배에 육박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조승아 3단
오유진 7단
김채영 6단
최정 9단

85일간 펼쳐지는 여제들의 대국

역대 최대 상금! 최고의 라인업!

2021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INDUSTRIAL BANK OF KOREA WOMEN'S MASTERS BADUK

대회 기간 : 6.10(목) ~ 9.2(목)
8강부터 매주 수요일 19시 (결승 3번기는 목요일) 바둑TV 생중계 예정

후원 | IBK기업은행 | 주최 | 한국기원 | 주관방송사 | 바둑TV

SKT, 통신·투자사로 나누고 5대 1 액면분할

순자산 기준 6대 4 비율로 인적분할
주당 100원... 유통량↑·주주가치 제고
통신 관련 SK텔레콤·SKB는 '존속회사'
SK하이닉스·ADT캡스 등은 '신설사'



SK텔레콤(SKTEL)이 순자산 기준 존속회사 0.61, 신설회사 0.39의 비율로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 동시에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나눠 유통 주식 수를 늘리고, 주주가치 향상에 나선다.

SKTEL은 10일 서울 을지로 SKTEL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존속기업 'SK텔레콤 주식회사'와 분할 신설기업 'SKTEL신설투자 주식회사(가칭)'로의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로 결정됐다. 분할 기일은 11월 1일이다.

존속기업은 이동통신(MNO) 관련 자회사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이 속한다. 신설회사에는 16개 자회사가 편재된다.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윈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SK플래닛, FSK L&S, 인크로스, 나노엔텍, 스파크플러스, SK텔레콤 CST1, SK텔레콤 TMT 인베스트먼트, ID퀵티크, 테크메이커 등이다.

SKTEL은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1월 1일(분할기일)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주식 매대거래정지 기간(10월 26일~11월 26일)이 종료되면 11월 29일에 변경상장(존속회사) 및 재상장(신설회사)된다. 신설회사의 사명은 임시주주총회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대표 선임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별 이사진을 선임한 뒤 이후 다시 각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신설회사 대표는 박정호 대표가, 존속회사 대표는 유

영상 MNO사업대표가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TEL은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하기로 했다. 액면분할에 따라 주식 총수는 현재 7206만143주에서 3억630만715주로 늘어난다. 이는 약 6대 4 분할 비율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나뉜다. 예컨대 SKTEL 주식 20주를 가진 주주는 액면분할로 5배 늘어난 100주를 갖게 된다. 약 6대 4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회사 주식 60주와 신설회사 주식 39주를 각각 받는다. 소수점 이하 단주는 11월 29일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받는다.

SKTEL은 주당 가격이 내려가고, 유통량이 늘면서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EL은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4월 발표처럼 분할에 따라 존속회사는 AI,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한다. 신설회사는 반도체·ICT 투자 영역에 힘을 쏟는다.

신설회사는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무대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보안(ADT캡스), 커머스(11번가), 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다양한 ICT 영역에서 국내외 투자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회사 기업공개(IPO)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사무실 안 와도 된다” 페북 ‘영구재택’ 꺼내 애플은 재택·출근 병행 직원 반발

미국 주요 기업들이 속속 자사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방침을 내놓는 것과 반대로 페이스북이 유연근무제도 정책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며 ‘영구 재택근무’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5일부터 모든 직급에 상관없이 원격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라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만 재택근무를 허용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회사는 9월까지 미국 내 사무실을 수용 인원의 50% 범위로, 10월께에는 정원의 100%에 대해 재개방하지만, 재택을 원한다면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데이터센터 등 현장 근무가 필요한 직군의 경우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남은 기간 직원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재택근무를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미국 직원들이 캐나다에서, 유럽 직원들이 영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장소를 바꾸면 급여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9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1년간 훌륭한 업무 처리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페이스북의 근무 정책은 애플과 대조적인 것이다. 애플은 9월부터 주 3일은 사무실, 이들은 재택 근무하는 형태로 정상 근무 모드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더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는 애플뿐만 아니라 상당수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업무 형태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한 달 새 벌써 4곳... 삼성, 헬스케어 투자 늘리는 까닭?

원격의료 급성장에 미래 먹거리 낙점

삼성전자가 글로벌 원격 의료 및 헬스케어 업체에 대한 투자를 최근 크게 늘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다.

10일 삼성벤처투자에 따르면 7일 인도네시아 원격 의료 업체인 알도독터(Alodokter)가 모집한 벤처라운드 투자에 참여했다.

2014년 설립된 알도독터는 원격의료와 진료 예약, 의료·건강 정보, 온라인 약국, 건강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월 사용자만 3000만 명에 이르고, 협력하는 의사 수가 4만3000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낙후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주요 먹거리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점찍었다.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 삼성카탈리스트펀드, 삼성벤처투자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한 달 새 벌써 4곳에 투자했다.

지난달 28일 삼성카탈리스트펀드는 독일 인공지능(AI) 의료진단 스타트업 ‘에이다헬스’가 진행한 9000만 달러(약 10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에 참여했다. 에이다헬스는 AI를 이용해 환자의 증상을 24시간 진단하는 ‘주머니 속 의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집에서 질병 관련 각종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영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마’에 투자했다. 또 삼성벤처투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놈’ 투자에도 참여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서치는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연평균 22.4%씩 성장해 2028년 2989억 달러(약 333조27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 경우, 아직 규제가 많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가 허용됐다. 전화 상담·처방 건수는 1년 새(지난해 2월~올 3월) 190만 건을 넘어섰다.

한편 삼성전자가 7월께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워치4’는 애플워치보다 먼저 ‘무재혈’ 혈당 측정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록 기자 syr@



**폭염, 폭우, 한파, 먼지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고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집값 10%만 내고 10년 살다 최초가로 분양

與 '누구나집' 공급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표' 주거 정책 핵심인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일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발표 내용 중 핵심은 누구나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0~2014년 인천시장 재직 때부터 주거 대안으로 누구나집 추진을 구상해 왔다.

누구나집은 10년짜리 분양 전환형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미리 정해진 분양가의 10%를 내면 10년 후 나머지 90%를 내고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살리고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분양가를 시세보다 10~20% 싸게 책정하는 데다 그중 10%만 먼저 내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부담이 적다.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은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 구조다.

누구나집이 기존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존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주택에선

민주당 '누구나집' 시범사업

분양 시기	2022년 초
공급 규모	약 1만785가구
공급 방식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
분양가	주변 시세의 80~90% 집값의 6~16% 지급하고 13년(건설 3년 + 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 가능
임대료	주변 시세의 80~85%, 임대료 상승률 2.5%



※ 출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민주당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강화·가격 안정화 효과 기대" 개발이익 분양가의 10%뿐,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 마련해야 후보지 6곳 모두 공기업·지자체 소유, 민간부지 확보도 과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매기고 있다. 아파트 건설 후 시세가 올라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분양 전환가와 건설원가 간 차액만큼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누구나집은 애초부터 분양가의 10%만 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못 박았다. 10년 전 정해진 분양가에서 시세가 오르면 그 차익은 모두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 몫이 되는 셈이다.

이런 사업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누구나집도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집값의 일부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집

마련을 가능케 하지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 시행자가 참여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지 확보도 과제다. 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집 후보지 6곳은 모두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다. 그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누구나집 사업은 대부분 부지 확보에 실패했다. 앞으로도

공공 부지에 의존하는 반쪽 민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공공 토지를 공공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분양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에 활용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발표된 누구나집 후보지가 서울 도심과 차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직주 근접을 바라는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

한다. 지난달 민주당이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군(軍) 공항, 교정시설,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구상을 밝힌 직후부터 시장에서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의왕시 서울구치소·성남시 서울공항 등이 구체적인 후보지로 오르내렸다.

김 위원장은 "올해나 내년(이들 지역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당·정 TF(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차기 대선 공약으로 간담든지 해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세훈 '부동산 완화서 규제' 왜?

집값 급등 우려·투기수요 차단 "재건축 완화 사전포석" 관측도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총력전에 나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집값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규제 틈을 노리는 투기 수요로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양도 금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지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대립보다 협력을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더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면서 투기 수요 삭을 잘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될 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원 자격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시장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부동산 규제책

- 4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상지: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
- 6월 9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 6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대상지: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집값이 크게 들쭉였던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이 오 시장 규제책의 첫 타깃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내리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는 건 집값 급등에 불을 지폈다는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규제=재건축 완화 속도 조절용 카드'라는 얘기도.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규제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일정 지역을 규제 틈에 묶을 경우 나타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오 시장이 압구정동을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해당 지역의 거래는 사실상 실종된 반면 인근반포동과 방배동 아파트 단지에선 잇따라 신고가 사례가 나왔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화도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며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론, 정치적 전략 등으로 오 시장은 당분간 투기 억제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모았다

KB Pay



* KB국민카드

준법감시기 심의필 제210422-01291-ADP(2021.04.22 기준)

마포·강동구 헬스·골프연습장, 내일부터 자정까지 영업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시행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제외
서울 5개교에 신속 PCR 도입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시동을 걸었던 서울형 상생방역은 약 두 달간 중앙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친 끝에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강동구에 있는 민간 체육시설 중 체육력단련장·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22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참여시설은 17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수영장이나 체육도장, 학원 교습소 등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빠졌다. 서울시와 각 협회 모두 영업시간 연장이 사업주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체육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인 만큼 이용자 관리가 쉽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도 제외됐다.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을 완화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도 매출을 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으로 12일부터 마포구·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된다. 10일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리는 등 실익이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최근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시범사업 업종에서 제외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 통제관은 “시범 사업을 잘 분석하고, 집단감염 사례 파악을 한 다음 식당과 카

페, 노래연습장 등 확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한 축인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집단감염 시 확산 위험성이 높은 물류센터와 콜센터, 기숙학교에서 자

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8일 기준 10만5264건을 검사해 현재까지 콜센터 3개소에서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등교학대에 대비해 서울대와 함께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신속 PCR 검사는 기존 PCR 검사와 달리 1~2시간이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학교당 1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코로나 백신 원부자재 확대 논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화상 회의

한국과 미국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 확대를 논의하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이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는 10일 한미 양국이 9일 밤(한국시간)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백신 생산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는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 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했다. 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의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결과를 점검하고, 이후 운영 방안을 협의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보건부,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에서 12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등에서 13명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일환 기자 whan@



안센 백신 접종 시작 10일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에 대한 안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등이 2회 접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안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이 완료된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접종자 및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코로나 예방접종 1000만명 돌파 ‘접종률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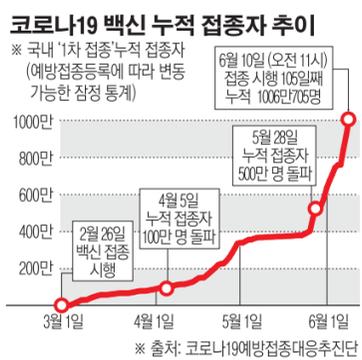
강도태 복지부 차관 기자간담회
“집단면역 목표 조속히 달성”
거리두기 조정안은 연기될 듯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1차)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11월 집단면역 목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누적 1차 접종자가 1006만705명(11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9.6%다.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213개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개시된 2월 26일 이후 105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1300만 명+알파(a), 최대 14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내 주 주말을 전후해 상반기 접종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에 정체돼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하고, 다중



이용시설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발표될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한 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강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개선과 함께 사적모임이라는 개인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내년 사용할 백신 확보에 대해 “올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할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에 영향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변이용으로 개량된 백신이 무엇이 있고 변이 대응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전체 국민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백신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정윤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치료제·백신개발사무국장은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셀트리온이 2월 5일일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4월 허순쯤에 임상 3상 등 록을 완료했다”며 “대응계약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 9개 정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이외에 여러 제약사에서 개발 중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폭로로 논란이 된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와 관련해선 “(대리수술로 인해)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번에 제도 개선이든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외교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등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하면) 환자 개인정보, 수술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미국 5억 회분+α·G7 10억 회분 급한 불 끈 부국들 ‘백신외교’ 시작

中도 아프리카 40개국에 제공

미국이 내년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5억 회분 이상을 저소득 개발국가에 보낼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도 백신 10억 회분 제공을 선언할 전망이다. 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자 한숨 돌린 부국들이 ‘백신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입해 내년까지 92개 저소득 국가에 공급한다.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기부하며 올해 2억 회분, 나머지는 내년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백신 기부를 위해 모더나와도 구입을 논의 중이다. 정확한 수량은 불확실하지만, CNBC방송은 화이자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 회분과 화이자-모더나-안센 백신 2000만 회분 등 모두

8000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국가에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백신 기부의 6배가 넘는 규모를 더 내놓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통제된 데다가 백신외교에 적극적인 중국의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다.

중국은 지난달 아프리카 약 40개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아프리카 말고도 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자국산 백신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2년 만에 마주하는 G7 회원국들도 미국에 보조를 맞춰 백신 기부를 선언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이 확보한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내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6%에 못 미친다.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국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소수에 그친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영국서 동맹집결 선언

취임 첫 해외 순방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며 국제사회 맹주로의 복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영국 공군기지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유럽과의 동맹 관계 강화를 순방 목적으로 삼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전통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로열 공군기지 밀드홀에서 미군 장병들을 만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민주 국가들이 다가올 문제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우리는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동맹국 관계를 재설정하고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순방 기간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G7 정상회담 개막에 앞서 10

英 공군기지서 공식 일정 시작
G7·나토·EU 정상회의 등

동맹 강화, 중·러 견제 투트랙

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 축소

무역 관세 철폐 등 선물도 챙겨

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하면서 양국 협력 관계 강화를 천명한 새로운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41년 세계 평화를 천명한 대서양 헌장의 새 버전으로, 코로나19 종식과 기후변화 대응 등 8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부터 사흘간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병행한다. 14일 나토 정상회의, 15일 미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순방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챙겨갔다. 미국과 EU는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을 축소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매겨진 무역 관세 철폐도 합의할 예정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영국 서퍽주의 밀드홀 로열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다. 영국과는 항공여행의 신속 재개를 합의하는 등 여러 안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해결 과제는 여전히 많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놓고 벌어진 영국과 EU의 무역 마찰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북아일랜드로 소시지 등 냉동육을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 중이다. 현재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NI) 프로토콜’에

따라 브렉시트 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아 있게 됐다. 이에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제품이 건너올 때는 세관검사 등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냉동육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적용했는데 이달 말 종료된다.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하려 하고 EU는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너진 나토와의 관계 재설정도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 일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

유럽의교위원회의 야나 폴리에리 독일 디렉터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9월 11일까지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다른 동맹국들이 결정을 따르는 모습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독일 관계자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며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 고위 인사 9명을 나발니 사태와 엮어 입국 금지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00@**

中, 美 비난하며 韓에 경고

“잘못된 美장단 따르지 말라”

한·중 외교장관 전화통화

왕이 “정치적 공감대 지켜야”
시진핑 주석 방한에는 침묵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 장관의 통화 내용을 이같이 소개하면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적시에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왕이(사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이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가 훈풍을 타고 있고, 미국이 G7 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자 견제에 나섰다 분석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분위기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왕이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제와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 의사를 내비쳤고 미국이 대북 민생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장관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 관계 즉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한중 관계에 더 많은 동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중 가역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의 제재를 완화하며 미국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관해서는 양국 외교부의 입장차가 감지됐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이 1시간 가까이 이뤄진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언제든지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지급

경영·심리 무료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車부품사 1000곳 2030년까지 미래차로 전환한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1000만 달러 수출기업 250개 육성
K반도체 신규 예타사업 본격 추진
백신·신약개발 임상 인프라도 확충

정부가 매년 자동차 부품기업 100곳, 2030년까지 총 1000곳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K반도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본격 추진방안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부품업체도 미래차로 전환이 시급하나 영세성, 낮은 기술수준 등 전환능력이 부족하다”며 “지금부터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 미래차 시장 및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 자율주행 등 완성차사 미래투자계획과 연계한 부품소재 개발, 차량용 반도체 등 전략품목 개발 등 신사업모델 발굴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신홍 미래차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000만 달러 수출기업 25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차 관련 펀드(5000억 원)를 활용, 미래차 전환 연구개발(R&D) 및 투자를 지원하고 부품성능·주행데이터 축적·공유시스템에 2025년까지 925억 원을 투입한다. 또

2027년까지 1만 명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부품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K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부장 클러스터 내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중부권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2개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신규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 양성과 더불어 예타가 진행 중인 PIM(연산+저장기능 통합) 인공

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K-Sensor 기술개발 등 3개 성장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약개발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임상시험 부담으로 도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약개발 평균 비용은 2조 원, 기간은 14년이 소요되며 임상 성공 시 비용의 50%, 기간의 3분의 2가 소요된다. 홍 부총리는 “임상 전 단계 스마트화,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임상 집중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상 비용, 시간 절약에 위한 참여자 모집 공공 플랫폼 구축, 임상시험기관(201개) 데이터 집적화,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제출 등 임상시험 전 과정을 지원하는 ICT 기반 스마트 임상시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5개 권역별 거점병원 중심 네트워크와 암, 감염병 등 5대 질환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신속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시행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 간 공동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상 전문인력을 올해 1600명, 2025년까지 1만 명 양성하고 기업의 임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범부처 신약개발 R&D 자금(2조2000억 원), 바이오 관련 정책펀드(바이오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2000억 원과 BIG3 + DNA 펀드 1500억 원 등)를 활용·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지원 거점도 설치해 미국시장 임상연계·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20kg 쌀 한 포대에 6만원 훌쩍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쌀값마저 크게 올라 대형마트에서 파는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원을 훌쩍 넘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 코너에서 구입할 쌀을 고르고 있다. 뉴스시스

일자리 가뭄에 물가 급등 ‘직격탄’ 서민경제고통지수 16.8 ‘역대 최고’

경제고통지수도 10년새 가장 높아

5월 서민경제고통지수가 16.8로 같은 달 기준으로 집계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가는 급등하고 취업자로는 분류는 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는 16.8로 산출됐다. 이는 2019년 5월 12.9, 2020년 5월 13.8에서 크게 오른 수치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다.

서민경제고통지수는 공식 실업자는 물론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자 등 체감상 실업자까지 더한 확장실업률,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바탕으로 서민층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다.

5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3.3%였고 확장실업률이 13.5%였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도 6.6으로 5월 기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2011년 5월(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지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실업률은 4.0%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2% 중반을 넘기면서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자리 가뭄에 더해 생활물가지수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승욱 “에너지시스템 혁신해야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 장관〉

전력공기업에 ‘선도적 역할’ 주문
“LNG발전 대체 건설 차질 없어야”
여름철 전력수급관리 상황도 점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전력공기업에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문했다.

문 장관은 이날 한국전력에서 한전 및 발전 6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를 하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전력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전력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력 공급, 전달, 산업생태계 등 3대 분야를 선도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공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규모 해상풍력처럼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전력공기업이 협업해 속도



문승욱(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당분간 LNG 발전 역할이 필요하며, LNG 발전 대체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력전달, 산업생태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해 적기 계통접속이 보장되도록 대대적인

전력망 보강투자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 등 백업설비의 조속한 확충과 분산형 전원체계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공기업이 선제적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앞장서 달라”며 “선도시장과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전력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전방위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도 당부했다.

세종·박병익 기자 riby@

도심·공항·바다에 ‘드론길’ 만든다

국토부 ‘K드론 시스템’ 실증사업 7개 기업 선정

도심과 공항,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다중 목적의 드론 비행을 관제하는 시스템이 본격 실증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실증으로 드론길이 만들어지면 장애물 제한이 없는 도심 시범 노선 발굴,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상·비가시권 장거리 배송 등 생활밀착형 드론 활용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K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 수행사업자로 공항 분야에서 KT, 도심 분야 한국공항공사, 한컴인스페이스, 장거리·해양 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해양드론기술, GS 칼텍스 등 총 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

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이다. 실증사업 수행자는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 중 드론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통신 장비와 웹 기반 드론 비행허가 시스템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도심에서의 드론 불법 비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용 시장 애물 또는 다른 비행체와의 충돌 우려 등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진향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이번 실증지원 사업은 K드론시스템을 통한 드론교통관리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서 활용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의 시작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GS칼텍스**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플러스'를 시작합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與 ‘정치편향성 논란’ 국가교육위법 강행 처리

‘부서관 사망 국조·특검’ 野4당, 국회에 요구서

진보·보수 20년간 내건 ‘단골 공약’ 국힘 “교육정책 알박기” 반발 퇴장 교총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없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책 알박기”라고 반발하며 의결을 거부했다.

국가교육위는 2002년 처음 제기된 이후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내건 ‘단골 공약’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단체로 반발 퇴장하고 민주당이 단독처리까지 감행하며 갈등을 빚은 쟁점은 국가교육위 ‘위원 편향성’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취지만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광산도 의원은 교육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임기가 끝날 때가 돼 이제 와서 공약이라며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걸 자기의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법을 밀어붙여 다음 정권에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을 저지하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 구성이 폭넓은 만큼 편향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특별히 강조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특정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교육위는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추천 5명에 더해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대학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건 의결이 가능한 위원 과반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당 당 4명과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까지 10명이 친정부

성향이고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데 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도 있다.

국가교육위가 현 정부 편향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채로 출범한다면,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권에서도 교육정책 결정권을 쥐게 된다. 만일 정권이 교체돼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정부와 국가교육위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3년 임기 후에는 보수정권이 마찬가지로 편향된 위원들로 국가교육위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정책 방향은 다시 뒤집히게 된다. 정권과 관계 없이 일관된 정책을 편다는 국가교육위의

취지가 결과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정권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건 고교학점제 등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박박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애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 국가교육위법을 일방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김윤호 기자 uknow@
손현경 기자 son89@

당정, 군사재판 이관 등 개편 주장

공군 부서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오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군사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은 요청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제출된 특검 법안에도 야 4당은 “현행법상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특검을 위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특검보단 군사재판 외부 이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의 경우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 원인이 “보고 체계, 피해자 보호, 공간적·심리적 분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서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감사원 꼼수 조사’ 국힘 결국 권익위로

감사원 퇴짜... 권익위, 사상 첫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가 불발될 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10일 조사를 진

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조사)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권익위에 가는

것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들 문제도 아니고 시간 끌 문제도 아니고 해서 마음에 덜 있지만, 다른 당이 하듯이 권익위에 간다”고 얘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

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접수되면 무소속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

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은 권익위에 접수를 마쳤고 7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물론 ‘플러스알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수석 부대표는 “권익위가 여전히 이런 걸 잘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플러스알파인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oo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호 발매



COVER STORY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

- PART 1 장례 문화로 본 웰빙
- PART 2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 PART 3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 PART 4 찾아줘 내 상조
- PART 5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도 될까?
- PART 6 “슬퍼도, 슬퍼지 않아도 괜찮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관통하는 브라보 '디지털' 라이프 1990년대를 사로잡은 최고의 MC 임백헌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전한 상속 솔루션, 신탁 구해줘 부동산 은퇴 후 리츠 해볼까?



전통 정원의 멋 다산초당



봄날은 갔지만 우리들의 화양연화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인생 3모작,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이금수 씨

가보고 싶은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② 전북 고창군

느린 여행 강화도 고려산 아래 묵묵한 내공의 우공책방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산기(山氣)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볼 만한 그림들



습기로문보살생량 7월 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4세대 실손보험'



제 버릇 못 고친 '기후악당' 中, 脫탄소 정책 제동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오명에도 NDRC, 환경보다 경제회복 초점 탄소배출 거래제 범위 축소 논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기후변화 대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NDRC가 중국 8개 도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마친 후 이달 말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국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 범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배출 거래제 조안에서는 8개 부문 6000개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NDRC의 개입으로 중국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 2200개 기업으로 줄었다.

환경 당국이 제한한 배출가스 절대 상한제가 아니라 예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허용치로 기준을 축소하면서 기업들에 더 많은 여유도 허용했다. 소식통들은 경제 관료들이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해 그 계획의 조항들을 약화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탄소 배출 제로를 약속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협상에서도 NDRC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생태환경부가 존재감을 더하고 권한이 강화돼 영향력을 키우는 듯했지만,

NDRC가 에너지와 탄소 배출 목표 설정에서 여전히 환경 당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의 목표 발표 이후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사무위원 겸 부총리는 환경 당국에 국가 배출권 거래 시장 설립을 가속화하고,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무원이 로드맵 작성 담당자를 올렸을 때 첫 번째 책임자로 꼽힌 것은 환경부가 아닌 NDRC 관료였다.

정부가 지난달 로드맵 작성을 감독할 공산당 간부 5명을 배치했을 때에도 3명이 경제 담당 고위 관료였다. 이처럼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작성 권한을 환경부가 아닌 경제 부처가 가져가게 되면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 뒷걸음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NDRC가 마냥 환경 정책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곳 관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NDRC의 지시로 중국 철강 허브 탕산시 당국은 지난달 말 업체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30~50% 감축하라는 지침을 취소했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환경을 저울질하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는 지난 4월 제네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의 회동에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문했다. 영국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에 대해 해외 석탄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줄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사회사 로덤그룹에 따르면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미국(11%)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효선 기자 hsyun@



인니 "BTS세트 달라" 아우성에 매장 폐쇄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9일 음식배달 기사들이 방탄소년단(BTS) 세트를 받기 위해 매장에 몰려들어 대기하고 있다. 현지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를 출시한 첫날이다. 주문이 몰릴듯이 쏟아져 각 매장마다 수십 명의 배달기사가 모이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최소 13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25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았다.

보고르/AFP연합뉴스

美 7600억 투입 '中 태양광 패권' 도전장

"3초마다 모듈 1개 생산" 퍼스트솔라, 오하이오주에 최대 규모 공장 건설

미국이 태양광 산업을 지배하는 중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 태양광 발전시스템 업체 퍼스트솔라가 오하이오주에 세 번째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퍼스트솔라는 오하이오주 새 공장 건설에 6억8000만 달러(약 7600억 원)를 투입해 미국 내 생산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완공되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 통합형 태양광 제조시설이 될 것이라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3기가와트(GW)로 미국 최대 규모다. 약 3초마다 태양광 모듈을 1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퍼스트솔라는 세계 메이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다.

이번 퍼스트솔라의 대규모 공장 건설 계획은 청정에너지와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



미국 오스틴에 설치된 퍼스트솔라 태양광 패널. 출처 퍼스트솔라

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위드머 퍼스트솔라 최고경영자(CEO)는 CNN에 "미국에서의 생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정책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투자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서부터 핵심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강국으로의 부상 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미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산업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광전지(PV)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자재와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위드머 CEO도 "중국이 PV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업체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된 노동력을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가상화폐는 투기"라더니 연준, 비트코인 간접투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연준의 입장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반전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한 'SPDR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고수익 채권 ETF(티커:JNK)'가 포트폴리오의 0.01%를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근 발행한 비트코인 투자 연계 정크본드(고수익·고위험 회사채)에 할당했다.

연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일환으로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SMCCF)를 통해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현재 총 138억 달러(약 15조 원) 상당의 회사채와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올 연말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연준은 JNK의 4대 주주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기업 중 하나다. 최근에는 4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 채권을 발행, 순조달액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가상화폐 구입자



연준의 비트코인 투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로버트 칼리니 연준 부총재

금 조달에 사용되는 최초의 정크본드 발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9만2000여 개에 달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ETF 담당 애널리스트인 아타나시오스 사로파기스는 "연준 보유분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솔직히 놀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반응은 연준이 줄곧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연준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매우 불안정한 자산으로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경고해왔다. 제롬 파월(사진)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을 두고 달러화보다는 금의 대체제인 투기자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JNK 외에도 연준이 보유한 또 다른 ETF인 '아이셰어스 브로드 USD 고수익 회사채 ETF'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채를 일부 갖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선 초반까지 후퇴했다. 엘살바도르가 이날 비트코인을 세계 첫 법정통화로 인정한 데 힘입어 현재 3만 달러 중반 선까지 회복한 상태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加 '키스톤 프로젝트' 완전중단

바이든 '인가 취소' 행정명령, 캐나다 반발 법적조치 가능성

미국과 캐나다가 추진하던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다. Barack Obama 전 미국 정부 시절부터 중단과 승인을 반복하던 이 사업은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아예 멈추게 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키스톤 송유관 업체 TC에너지는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성명에서 "환경과 규제 약속을 충족하고 프로젝트의 안전한 종단을 위해 규제 당국과 여러 이해관계자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유관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로 석유를 수송하는 2000마일(약 3200km) 길이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오바마 전 정부 시절 환경 문제를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승인하면서 작업이 시작됐다. 사업 비용만 90억 달러(약 10조 원)로, 이중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가 지난해 15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키스톤 프로젝트 인가를 취소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바이든 정부는 캐나다 원유 상당수가 모래와 섞인 오일샌드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유 추출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명 직후 제이슨 케니 앨버타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업 취소는 모욕적이며 앨버타주와 캐나다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 역시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며 비난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사업 중단 소식을 환영했다. 기후단체인 350.org의 켈달 맥케이 매니저는 "키스톤 사업 중단은 모든 화석 연료 사업을 중단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선례가 됐다"며 "금융업계도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내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



미국 네브래스카주 키스톤XL 프로젝트 창고 앞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장이 붙어 있다.

둘레스터/AP연합뉴스

가 커지면서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주 야당 NDP당은 케니 총리에게 이번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NDP 측은 "이번에 발생한 손실은 케니 총리가 어떻게 에너지 투자에 실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당국의 무능으로 앨버타 주민들은 1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성토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CBC뉴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지난 몇 달간 앨버타 남동부에서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다"며 "이번 중단으로 캐나다 유가가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1호 온투업자’ 단 3곳, P2P업계 ‘줄폐업’ 위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에 줄폐업 적신호가 켜졌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개인간 거래) 금융 업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기존 업체들이 기한 내에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3개사는 작년 말에 선제적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친 곳이다. 심사 및 등록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과정이 지연되면서 최종 등록까지 반년 가까이 걸렸다.

문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 수가 9일 현재 기준으로 41개 뿐이란 것이다. 올해 들어 영업 중인 P2P 업체는 120

8월 26일까지 등록해야 영업 자격 120여개 업체 중 30%만 신청 마쳐 금융당국 심사도 늦어져 탈락 늘 듯 ‘폐업 땀 투자자 피해’ 우려 목소리

여 개로, 30%의 업체만이 등록을 신청한 꼴이다. 금융위가 단 3개 업체의 등록을 허가하는데 6개월가량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마감까지 40여 개 업체의 심사를 모두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달 말에서야 접수를 마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말에 신청서가 대거 접수되다 보니 이제야 담당이 지정되는 시작 단계”라며 “서류도 종합적으로 일일이 봐야 해 모든 업체가 다 등록이 될지

자자정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아직 가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들은 8월 27일부터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해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폐업할 경우 물론 법적으로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있지만 업체 인력과 자금 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대부업 전환 시 기존과 달리 여신만 가능하게 돼 수신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된 P2P 업체에 대한 규제는 온투법적

용되기 전이다 보니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금 회수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무법인 등과의 계약을 통해 대출 회수를 위탁하도록 지도는 해왔다”며 “P2P 업체가 기존에 나갔던 대출에 대해 폐업을 하더라도 회수 의무는 법적으로 있어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규모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중대형 P2P업체는 등록 신청을 했고 폐업 가능성이 큰 업체들의 대출 및 투자자 비중은 큰 편이 아니어서 시장의 혼란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카카오 손보’ 탄생 초읽기, 업계 판도 흔들까

카카오페이, 예비허가 획득... 빅테크 첫 보험업 진출 예고 “강력한 플랫폼 ‘카톡’ 파급력 엄청날 것” 기존 업체들 ‘긴장’ 성공 관전 ‘수익성 확보’ 혁신상품 등 차별화 전략 내놓을 듯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승인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사 본허가를 받게 되면 빅테크 최초로 보험업에 진출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360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에 안착한 후, 수익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험산업 경쟁·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별 무리 없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설립 예비 허가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당국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에 단단히 박힌 미운털이 카카오보험에까지 불뚝 튕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당국의 인가 조건이었던 중금리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집중하는 영업행태를 보여 금융당국의 질타를 받아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보험 인가 지연을 두고 일각에선 카카오뱅크가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대출 취급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당장 수익성을 위한 공격적인 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소비자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직접 만드는 제품) 보험,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카카오손보가 소액 단기전문보험(미니보험),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디지털 종합손보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결국 수익성 확보이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은 가격이 저렴한 만큼 보험사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한 영업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라며 “다만 어떤 상품 라인업을 가져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적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시장은 아닐 것”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잠재적인 고객을 얼마나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가

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카오손보의 등장으로 보험업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앞선 디지털 보험사와는 차원이 다른 ‘메기’이기 때문이다. 인력 유출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디지털 손보사들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 디지털 역량 측면에서도 기존 보험사들과 차별화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거대 플랫폼은 물론 카카오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도모가 쉬운 카카오손보의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카카오손보가 얼마나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카카오손보가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까지는 본인이 절차가 남았다. 본인이 절차 이후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에 가입한 후 요율을 받아 영업에 나서게 된다. 앞서 카카오손보는 보험상품 개발을 준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을 신청했지만 당국의 본허가가 나오지 않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고 개발원의 사원사가 되기 전까지 요율을 공유할 수 없다”며 “그 전에는 사적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신한銀, 희망퇴직 실시

근속 15년 이상... 14일까지 접수

신한은행은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 및 재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직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2021년 5월 기준) 근속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희망퇴직 접수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해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 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다”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퇴직자에게 재채용 옵션,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융 인사이트

국책은행 노조 ‘청년 일자리 해결’ 앞장선 까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대두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책은행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IBK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청년 희망, 공공금융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20~30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IBK기업(253명)·산업(114명)·수출입은행(38명)이 지난해 채용한 신규 인력은 총 405명이다. 신규채용이 전부 청년 고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 기관의 고용 창출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노조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 노조는 은행권을 ‘양질의 고용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은행의 정규직 비중은 92.8%로 전체 산업 평균(67.0%)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또 은행은 여성 인력 참여나, 근속기간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질의 일자리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일부 대형 시중은행은 매년 1000명 안팎의 인원을 채용했다. 여성 채용 비율도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근속기간도 길다.

반면 노조는 국책은행 신규채용이 2017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 원인으로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 국책은행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인원이 쌓여가면서 조기에 퇴직하고 싶어도 퇴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시중은행은 매년 희망 퇴직자를 받고 인력이 노화되지 않도록 하지만, 고용 정원 규제에 묶인 공공기관은 희망퇴직을 받지 못하면서 신규채용이 점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줄곧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국책은행에만 희망퇴직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의 폐지나, 희망퇴직 규제의 완화 등의 직접적인 요구 사항을 ‘청년 고용의 문제’로 환원해 제시한 것이다.

국책은행 노조는 정원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해 정원 대비 현원 초과운용을 일부 허용(100→105%)하면 약 2만2000명의 신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원(약 43만6000명)에 초과운용 5%를 곱한 값이다. 국책은행은 자신들의 사례가 마중물이 돼 전체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들 노조는 은행이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은행은 자체 조달 수익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조가 주장한 대로 청년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희망퇴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만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진산 기자 jinsan@

부산은행,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안하기로 결정

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 이투데이 확인 결과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해 온 부산은행이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계좌 확보와 수수료 등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증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병근 기자 nova@



우산을 점점 더 기울이는 아빠의 마음처럼

예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하룻길,
우비도 입히고 장화도 준비했지만
아빠는 예린이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걱정인가 봅니다

아빠의 어깨가 다 젖는 것도 모르고
예린이를 위해 기울어지는
저 우산처럼

신한은
언제나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신한은행



- 이벤트 기간: 2021.6.7 ~ 2021.6.30
-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에 소중한 이에게 우산을 기울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신한마음우산 #신한은행 #마음을기울입니다)
- 경품 안내: 매 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커피(500명), 30만원 백화점상품권(3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개별 연락 드립니다.
- ※ 참여하신 마음을 모아 장마철 어린이 빗길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마음우산이 기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shinhanbank_official) 을 참고하세요.

생산~소비 밸류체인 구축 '3000兆 수소시장' 선점

'수소기업협의체' 9월 출범

현대자동차와 SK, 포스코, 효성 등 4개 그룹은 수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수소기업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만큼, 힘을 합쳐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수소 산업을 다루는 기구는 이전에 존재했지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민간 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수소경제는 2040년 30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수소기업협의체는 수소 산업을 다룰 민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정부와 기업이 인식을 같이하며 만들어졌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3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민간의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건의, 기술수요 조사, 협력사업 발굴을 종합 추진할 '한국판 수소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위원회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한 협의체는 세계적인 기업이 참여 중

현대차·SK·포스코가 공동의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정책 건의 사업 제안 등 기업 목소리 전달

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이다. 2017년 1월 설립된 이 기구는 전 세계 기업 CEO 또는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수소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한다. BMW, 다임러, 아우디, 도요타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와 BP, 3M, 에어버스, 쉘 등 100여 개 다국적 기업이 참여 중이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가 회원사다.

회원은 수소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입안자, 국제기구, 시민 사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소 관련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산업 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

국내 4개 그룹이 주도할 수소기업협의체도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정기 총회와 포럼을 열어 수소 경제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동시에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의 참여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운송, 소비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룹별 수소 사업 목표	
현대차그룹	- 2030년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 - 2030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70만기 생산
SK그룹	- 2025년 수소 생산-유통-소비 밸류체인 구축 - 2023년 부생수소 3만톤 생산 - 2025년 청정수소 25만톤 생산
포스코그룹	- 2050년 그린수소 500만 톤 생산, 수소 매출 30조 원 달성 -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해 2050년 사업장 탄소 배출 제로화
효성그룹	- 2023년 울산에 1만3000톤 액화수소 공장 건립 - 30곳에 대형 액화충전소 설립

데 힘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SK, 포스코 등 3개 그룹이 공동의장을 맡아 총회를 이끌고, 효성을 포함한 4개 그룹이 수소 관련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의 추가 참여를 견인할 계획이다.

수소 경제를 다루던 기존 기구와는 협력·보완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H2KOREA)'에는 정책을 건의해 기업의 목소리가 수소경제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등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4개 그룹이 설립할 협의체는 수소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라기보다는 민간으로 구성된 별도의 모임이다"라

며 "기업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수소 관련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설명했다.

수소기업협의체 출범과 함께 4개 그룹은 기존에 추진하던 수소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탈 탄소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수소전기차 50만 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수소 생산에 집중한다. 2050년까지 그린수소 500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 부문에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했다. 동시에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공법을 개발해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 배출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수

소 생산뿐 아니라 유통·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2025년 세계 1위 수소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수소 사업 전담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했다. 2023년 부생수소 3만 톤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친환경 청정수소 25만 톤을 포함해 총 28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2023년까지 세계적 기업 린데와 함께 울산 남구 용연 국가산업단지에서 연간 1만 3000톤 규모의 액화 수소 공장을 건립하고, 전국 30여 곳에 대형 액화 수소 충전소를 세우는 등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늘러붙은 밥풀도 '걱정 끝' 삼성전자는 세척에서 건조·살균 기능을 강화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11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360° 제트샷'과 '열풍건조' 기능을 더해 세척 성능뿐만 아니라, 건조와 살균까지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360° 제트샷'은 뜨거운 물살을 집중적으로 쏘아주는 기능으로, 음식물이 늘어붙은 냄비, 프라이팬의 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출고가는 144만~184만 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LG, 보행자 안전지킴이 'Soft V2X' 솔루션 첫선

LG전자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발 중인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Vehicle to Everything·차량과 모든 개체 간의 통신)'를 처음 공개했다.

LG전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이 기술을 선보인다.

Soft V2X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간, 차량과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알려줘 교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 별도의 전용 단말을 이용하는 기존 V2X와 달리

Soft V2X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전용 모바일 앱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한다. 사용자의 충돌위험을 감지한 경우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 큰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돌발상황은 물론,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사고 예방에 유용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공개

GS칼텍스는 10일부터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플러스 허브 전시관은 △브랜드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등 3개 구역으

로 구성된다. 문화비축기지 전신인 석유비축기지 원형 디자인을 활용해 모든 방향에서 고객 삶에 가까워지는 에너지플러스의 확장 의지를 표현한다. 특히 전시관 인근에서는 ㈜두산,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기업 N15와 함께 '미래형 주유소 및 수소 드론 배송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커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회 마지막 날 최종 시제품의 독창성과 기술성을 평가해 최종 2팀을 선정하고 상금 총 1000만 원을 시상한다. 김대영 기자 kdy@

삼성, 업계 최소 0.64μm 이미지센서 출시

5000만 화소 '아이소셀 JN1' 기존 픽셀보다 면적 16% 축소 스마트폰 얇은 디자인 구현 가능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가장 작은 픽셀 크기 0.64μm(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인 50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JN1'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영상 정보)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다.

'아이소셀 JN1'은 기존보다 크기가 작은 1/2.76"(인치) 유틸리티 포맷의 고화소 이미지센서다.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성능을 높이면서도 얇은 디자인으로 설계할 수 있다.

픽셀 크기 0.64μm인 '아이소셀 JN1'은 한 픽셀의 면적이 기존 0.7μm 픽셀의 이미지센서보다 16%가량 작아졌다. 이를 통해 모듈의 높이를 약 10% 줄여 카



삼성전자 연구원이 0.64μm(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인 50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JN1'을 핀셋으로 집어 보이고 있다.

메라 돌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아이소셀 2.0(ISOCELL 2.0) △인터신 HDR(Inter-scene HDR) △더블 슈퍼 PD(Double super PD) 등 최신 이미지센서 기술을 탑재했다.

'아이소셀 JN1'은 픽셀이 받아들이는 빛의 손실과 픽셀 간 간섭현상을 최소화한 '아이소셀 2.0'의 설계를 최적화해, '아이소셀 플러스(ISOCELL Plus)' 대비 감도를 16% 개선했다. 더

널 입구처럼 매우 밝고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있는 환경에서는 높은 감도의 이미지와 낮은 감도의 이미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폭넓은 명암비를 제공하는 '인터신 HDR' 기능도 탑재했다.

또 이번 제품에는 '더블 슈퍼 PD' 기술이 최초로 적용됐다. '더블 슈퍼 PD'는 화소수가 같은 '슈퍼 PD' 이미지센서 대비 자동 초점에 활용하는 픽셀 수를 두 배 늘렸다. 60% 적은 광량에서도 빠르게 초점을 잡아준다.

삼성전자는 개발 초기부터 카메라 렌즈, 모듈 제조사와 협력해 '아이소셀 JN1'이 1/2.8" 제품과 호환될 수 있는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했다.

모바일 기기 전면과 후면의 광각·초광각·망원 카메라 등에 많이 탑재되는 1/2.8" 제품의 렌즈, 모듈 등과 호환돼 제조사들이 손쉽게 '아이소셀 JN1'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전면에 탑재해 셀피나 단체 촬영 시에도 고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LG 상징 '미래의 얼굴'에 생동감을 더하다

미래의 얼굴 익스프레션스' 공개

LG가 심벌마크를 활용한 '미래의 얼굴 익스프레션스(Expressions)'를 공개했다. 기존 심벌마크에 역동성을 가미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심벌마크인 '미래의 얼굴' 본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고 생기 있는 표현들로 디지털 세대의 감각을 반영하고 주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공개한 디자인들은 '미래의 얼굴'이 상징하는 '젊음, 인간, 기술, 세계, 미래'의 의미를 담아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강화했다.

심벌마크의 기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



LG 심벌마크에 생동감을 더한 '미래의 얼굴 Expressions' 디자인이 적용된 7종 이미지.

해석해 꽃처럼 싱그럽게 피어나는 젊음을 형상화하고, LG의 고객 중심 경영이념이 확산하는 파장을 연상할 수 있는 디자인 등 7개 모양으로 구성됐다.

LG는 이를 그룹 공동 임직원 명함에 먼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명함은

한 면을 임직원 소속과 연락처로 구성하고, 다른 한 면에는 7개의 '미래의 얼굴 Expressions' 중 원하는 디자인을 반영해 구성원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차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의 고객 접점에서도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확장 적용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미래의 얼굴"은 글로벌 고객은 물론 내부 구성원을 표현하는 이미지"라며 "이 자산을 토대로 LG 브랜드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LG 브랜드가 새롭고 의미 있게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발 묶이고 치솟는 운임에 수출기업 '이중고'

SK하이닉스, 파격 임금 인상 이어 '3년 미만' 경력자 채용전형 신설

中엔텐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항만 인근 컨테이너선 44척 적체
해운·항공 화물운임 사상 최고치
운송 지연 등 물류비 부담 '눈덩이'



해운과 항공 화물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만 적체와 화물 용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글로벌 해운전문지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주요 항구인 선전 엔텐항 인근에 약 44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40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항만에 접안하지 못하는 것은 엔텐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엔텐항은 지난달 말 폐쇄됐다.

엔텐항 일부 구역은 폐쇄 6일 만에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항만 적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1~2주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매일 7000명이 넘는 항만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항만 운영이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아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엔텐항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수출입 중심 항구"라며 "선사들

은 인근 항구로 항로를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선박 부족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항만에서는 선박 입항에서 화물 하역까지 10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 미국 항만 물류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서 유럽 항만 화물 하역 작업도 더뎠고 있다.

항만 적체로 화물 운임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4일 역대 최고치(3613.0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화물을 제때 운송하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운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늘어섰다. 수출업체들의 고충을 해결

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HMM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25척의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했다. 다음 달부터는 미주 운항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증편 투입한다.

항공 화물 시장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항공 화물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강세가 예상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항공사의 국내의 화물 운송량은 21만 3935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5682톤보다 약 22% 늘어난 것이다.

수요 강세에 화물 운임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 화물 운임지수인 TAC 지수의 지난달 홍콩~북미 노선 항공 화물운임은 1kg당 8.70달러로 2015년 통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투자은행 스티펠은 "현재의 항공 화물 공급 및 수요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까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분석했다.

해운 운임이 크게 오른 데다 선박 부족으로 운송이 늦어지면서 재고를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항공 운송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관계자는 "항공화물 대비 해운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컨테이너 용량 부족으로 인해 항공 화물을 대안으로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한영대 기자 yeongdai@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3년 미만' 경력을 가진 지원자를 위한 새로운 채용 전형을 신설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는 이달 14일부터 3년 미만 경력자를 뽑는 '주니어 탤런트(junior talent)' 채용 전형을 대졸 신입 수시 채용과 함께 진행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7월 중 인·적성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입사하게 될 예정이다. 주니어 탤런트 전형 대상자는 신입 전형과 중복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니어 탤런트 전형은 SK그룹 다른 계열사인 SK텔레콤에서 시행돼 온 수시 공채 방식 중 하나다.

SK하이닉스의 경력 채용 중 3년 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3월 진행된 대규모 경력 채용에서도 SK하이닉스는 만 4년 이상의 업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최근 작년 두 배가 넘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 결정을 한 만큼, 이번 채용에 많은 인력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8%에 달한다. 노우리 기자 we1228@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김대지 청장 “경제 회복 위해 기업 세무조사 건수 줄일 것”



국세청장-상의회장단 간담회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납세분쟁 제로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김 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협업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개정 필요 사안도 TF 차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하면 후속 작업이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애초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기부금 인정 여부, 상속세 등이 있다"라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 찾는 일에도 관심·협업을 요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도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희생중소기업 사장님 -
절망은 NO
희망은 ON!

정부, 회생법원, 캠코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희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캠코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서울회생법원 | 금융위원회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도심항공교통〉

이통 3사 미래 모빌리티 'UAM·자율주행' 한눈에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참여
SKT 티맵, UAM 가상탑승 체험
KT, 무인 비행체 교통관리 선배
LG유플 ‘자율주행차 주차’ 시연



SKT 모델이 VR로 구현된 UAM 콘텐츠를 통해 상암동에서 코엑스까지 이동하는 가상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KT 전시관 방문객이 'IVI(In-Vehicle Infotainment) 플랫폼' 존에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등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전시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서울시 주최 '2021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

10일 SK텔레콤(SKTEL), KT,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1사흘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엑스포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미래 교통환경과 모빌리티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다. 전시는 크게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스마트물류, 자율주행 관련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SKTEL은 'K-UAM 드림팀'으로서 한국 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과 서비스·인프라·기체·연구분야의 사업 비전과 핵심 기술력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한화시스템은 최대 시속 320km/h로 비행하는 에어 모빌리티 기체 '버터플라이' 실물모형을 전시하고, UAM 체험을 위한 기체 내부 시뮬레이터를 선보인다.

티맵모빌리티와 UAM 서비스 품질을

결정할 빠르고 편리한 예약 프로세스 및 탑승과 관련된 가상 탑승체험 코너를 준비했다. 스마트폰으로 티맵모빌리티의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한 뒤 경로를 검색하면 지상교통과 UAM으로 이동할 때의 소요 시간을 비교해 준다.

이후 얼굴인식 등 간편한 방식의 사용자 인증으로 예약 및 탑승 수속까지 마치면, 시뮬레이터에 올라 UAM을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UAM 탑승예약부터 버스·철도·퍼스널 모빌리티 등 육상 교통수단과의 환승 관련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자율주행에서 차세대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영상분석 솔루션'과 '정밀측위 기술'이 활용된 제주도 내비게이션 시연이 가능하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를 체험할 수 있다.

KT는 드론택시와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을 관제하는 '무인 비행체 교통관리(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플랫폼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KT는 SSME 2021을 기회로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공략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부장 부

사장은 "SSME 2021에서 KT는 그동안 차량 제조사 등 B2B 파트너들에게 제공했던 모빌리티 플랫폼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관람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행사 부스에는 한양대학교 자동차전자제어연구소(ACE LAB)와 함께 개발한 5G 자율주행차와 △자율주차/5G관제/다이나믹 맵/정밀측위/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분석 솔루션 등 자율주행 기술 △카포테인먼트 서비스(Audio Video Navigation) 등이 꾸며진다.

관람객들은 LG유플러스의 자율주행차가 제공하는 자율주차 서비스를 관찰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자율주행차는 행사장 내 출발점에서 500여 미터를 달린 뒤 전시 부스 내 마련된 주차장에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강원북로·올림픽대로에서 세계 최초 5G 기반 자율주행,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 일반도로에서 C-ITS 기반 5G 자율협력주행을 공개 시연했다.

강종오 LG유플러스 스마트시티사업담당은 "이번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LG유플러스가 그동안 갖고 있던 자율주행·자율주차기술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與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공정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발의에
김병욱 의원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정안 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국회가 개인정보위의 입장에 힘을 실는 법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부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성을 줄인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정한 결과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수집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 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공정위의 개정안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개정안에 명시된 성명·전화번호·주소 수집 의무를 삭제하고, 판매자정보 제공 시 개인(소비자)이 아닌 공적인 조정기구에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의 법안에는 정보 확인 의무 항목 중 '성명'만이 남았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동의 전제)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및 거래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의 의견차가 마무리된 데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도 풀이된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15.8%에 달하며, 판매자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논의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공정위 우려처럼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없었다는 것.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조정부를 구성해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접수된 총 1705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조정부 구성 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종료된 사건도 총 664건으로 60.6%였다.

대부분이 분쟁조정 전 합의로 마무리되고,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결정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자는 새로이 회원 20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반발에 부딪힌 만큼, 개인정보위의 권고와 의원입법의 내용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국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 "받은 의견들 중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라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넷마블 '제2의 나라' 출시

넷마블이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감성 모험 RPG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출시 지역인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서 매출-인기 1위를 기록한 만큼 한국과 일본에서도 흥행을 거둘 전망이다. 제2의 나라는 레벨파이브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합작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 시리즈를 모바일 RPG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中 수출길 닦아주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20곳과 '상하이 CTIS 2021' 참여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만나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Consumer Technology & Innovation Show(CTIS) 2021'에 한국관을 조성, 중소기업 20개사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한국관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제품 경쟁력, 수출역량 등의 평가를 통해 엄선한 곳이다. △에브리넷(물결레 로봇청소기) △센텍코리아(음주-케톤측정기) △월딘(스마트 요리기기) △주제이컴정보통신(보호필름) 등이 이름을 올렸다.

CTIS 2021은 글로벌소스가 주최한 전자전으로 CES 아시아 후속 행사다. 텐센트, 샤오미, HTC 등 중화권 대기업을 비롯해 8개국 1300개 업체가 참가했다.

방문객도 6만여 명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여기업들을 지원했다. 특히 무역 경험이 있는 홍보 전문인력(MD)을 선발해 교육하고 이들을 현장에 배치하며 오프라인 홍보에 힘썼다. 현장에 구비된 화상상담실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수출상담도 진행했다.

전시회 기간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는 3000여 명 수준이다. 참여기업들은 총 415건의 화상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전시회 참여기업인 에보소닉 관계자는 "사전 교육을 받은 MD들이 매우 전문적이라 전시회 직접 참가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현지 바이어들의 호응이 좋아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방통위, 국민은행·토스 '본인확인' 지정심사

국민은행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신원위원회는본인확인수단의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신세계 제주·롯데 의왕 '아웃렛'에 힘신는 유통 빅3

신세계, 이르면 7월 말 서귀포 신화월드 내 문열어
롯데, 의왕 백운호수 인근 휴양지 콘셉트 '타임빌라스'
현대, 지난해 2곳 출점... 아웃렛, 이커머스 대안으로

유통업계가 아웃렛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비 시장이 가성비 중심의 합리적인 소비로 전환하면서 백화점에 비해 제품을 싸게 파는 아웃렛이 이커머스와 견줄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의 차별화된 변신이 생존전략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로 야외에 위치해 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아웃렛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플렉스'로 대표되는 명품 소비가 각광받으면서 각 업체들은 프리미엄 아울렛에 힘을 주는 추세다.

지난해 현대백화점이 대전과 남양주 2곳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선보인 데 이어 신세계사이먼은 이르면 7월 제주 서귀포에 출점한다. 9월에는 롯데가 경기도 의왕에 '타임빌라스'라는 브랜드로 출시표를 던진다.

아웃렛은 최근 오프라인 업종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아울렛 시장은 2011년 7조 9000억 원에서 2016년 14조3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지난해에는 19조 원으로 커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평균 성장률 14% 수준으로, 정체된 백화점 성장세와 대조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쓴맛을 봤던 지난해에도 아울렛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세계 아울렛의 지난해 총매출은 1조55339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올랐고,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울렛 8곳의 전체 매출은 직전해보다 4.1% 늘었다. 다만, 실내 점포와 일반형 아울렛이 많은 롯데아울렛은 지난해 3조 원 매출로 직전해보다 17% 가량 뒷걸음질 쳤다.

◇원조 신세계, 제주 찍고 대구도 간다=신세계사이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제주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채용박람회는 '신세계사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조감도.

먼'이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후원한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제주점은 제주 서귀포 신화월드 내 메리어트 호텔 지하 1, 2층으로 과거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이 면세점은 지난해 4월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철수했다. 이때문에 규모는 제주점은 프리미엄 아울렛 이름에 걸맞지 않게 8834.54㎡(약 2672평) 가량으로 중형 사이즈다.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7월 말 개 오픈할 예정이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시즌에 오픈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첫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신세계 사이먼이 관광지에 선보이는 첫번째 점

포"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2007년 여주점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아울렛을 선보였지만, 롯데와 현대 등 빅3 업체 중 아울렛 점포 수가 가장 적다. 현재 여주점과 파주점, 시흥점, 부산점 등 4곳을 운영중인데 최근 들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점에 이어 이르면 2023년 대구 인근의 경산지식산업지구 5만 3000평 부지에 '경산프리미엄아울렛'을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 '타임빌라스' 9월 오픈=롯데는 신세계에 비해 1년 늦은 2008년 처음 아울렛 시장에 뛰어든 후 현재 21개를 운영할 정도로 사업 확장 속도가 빠르다. 프리미엄 아울렛 5개와 일반아울렛 14개, 팩토리 아울렛 2개다. 이중 이천점은 2017년 증축해 기존 5만 3000㎡(1만 6200평)의 영업면적이 총 6만 7200㎡(2만 500평)으로 늘며 국내 최대 면적의 아울렛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연초에는 '매종동부산'이라는 상호를 특허 출원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의 리빙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오픈한 점포는 2018년 12월에 문을 연 기흥점이며 3년 만인 9월에는 경기도 의왕에 프리미엄 아

울렛을 선보인다. 의왕점은 '타임빌라스'라는 새 점포명을 붙여 고급화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의왕 점포는 백운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소풍 기드 휴양지 컨셉으로 지어져 독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매종동부산은 나이기관처럼 리빙 전문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울렛 출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아울렛 사업에 뛰어들어 신세계와 롯데에 비해 7-8년 늦지만 최근 출점 속도는 더 빠르다. 지난해 6월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을 오픈한 후 5개월 후인 11월에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프리미엄 아울렛 4호점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SPACE1)'의 문을 열었다.

'스페이스원'은 영업면적 6만 2393㎡(약 1만 8874평) 규모로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시청과 강남역 등 서울 도심과 거리가 17km에 불과해 기존 김포점보다 도 더 서울에 가깝다. 현대는 2023년 시티 아울렛인 청주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수영복·제습기·빙수... 유통가는 벌써 한여름

G마켓, 수영복 할인판매
이마트, 제습기 특가행사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에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한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수영복, 제습기, 여름 침구류 등 내놓고 호텔에선 빙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안전한 풀빌라, 호캉스 등을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수영복 브랜드의 레시가드, 비치 반바지 등 다양한 단독 상품과 신상품을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오프라인 매장도 SSG닷컴을 통해 수영복 전문 브랜드 아레나의 단독상품을 내놨으며 나이키 스텝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상품을 준비했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의 수영복 매출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전년보다 55.4% 역성장했으나, 올들어 3월부터 6월 7일까지 수영복 장르는 전년 동기 대비 47.0%로 급등하며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문열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 상무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 날씨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영복 소비 심리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도 13일까지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고, 스포츠 브랜드 '배럴'의 전 상품라인을 최대 45% 단독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배럴의 인기 스포츠웨어, 수영복, 키즈 상품 등을 한자리에 모은 점이 특징이다. 추천 상품으로 △우먼 베니스 워터 레깅스 △맨 팔리부 워터 레깅스 등 개주얼웨어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이마트는 제습기 행사를 준비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LG, 신일, 위니아 등 3개 브랜드 제습기 6종을 특가로 선보인다. 대표 품목으로 신일 제습기(SDH-M06KP) 6L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2만 원 할인한 15만 9000원에, LG 제습기(DQ200PSAA) 20L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62만 9000원에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온은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쾌적한 수면을 도와주는 여름 침구류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까지 본점 등 수도권 12개점에서 여름 홈캉스 준비를 위한 30억 원 규모의 '리빙 페어'를 진행, 여름철 침구류 및 가구, 주방, 식기 등의 리빙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롯데온에서도 '애프터워크'를 맞아 13일까지 소프라이움, 아망떼, 바자르, 아르페지오 등 침구류 브랜드 상품들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소프라이움 피치100 시베리아산 여름 구스 이불'을 최종 혜택가 20만 7200원에, '아망떼 메르시 시어셔커리블 누빔여름이불 침구 세트(SS)'는 최종 혜택가 3만 5120원에 판매한다.

조선포털엔리조트는 무더위를 식혀 줄 여름 빙수를 사업장별로 선보인다.

조선 팰리스 호텔의 1914라운지엔 바에서는 고당도 품질유지를 위해 여름 빙수로 카라향을 선택했다. 조선 팰리스는 첫 빙수인 '카라향 빙수'를 선보이기 위해 최상급 당도의 제주 카라향을 엄선해 150개 빙수만을 한정 판매한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라운지엔바에서는 '수박빙수'와 '애플망고' 2종을 9월 30일까지 선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전세계 망고 다있네"

이마트는 16일까지 일주일간 태국, 필리핀, 브라질 등에서 수입한 4종 망고 총 7만 팩을 할인 판매하는 '세계 망고 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 태국산 마하차늑 망고(2입·팩)를 정가가 대비 25% 할인된 5980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필리핀산 카라바오 망고(3입·팩)는 6980원, 태국산 남동마이 망고(2입·팩)와 브라질산애플망고는 각 7980원에 선보인다.

사진제공 이마트

“곰 잡으러 온 곰”

GS25 북극곰 로고 '노르디스크 맥주' 출시... CU '곰표'에 도전

GS25가 '노르디스크 맥주(사진)'로 CU의 '곰표 밀맥주' 아성에 도전한다. 두 회사 모두 '곰'을 소재로 한 맥주로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 관련 포인트다.

GS리테일은 8번째 차별화 수제맥주로 북유럽 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Nordisk)'와 컬래버레이션 진행한 '노르디스크맥주'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GS25와 GS THE FRESH(GS더프레시, GS스퍼마켓)에서 판다. 가격은 3500원이며 4캔 1만원 행사를 실시한다.

'노르디스크맥주'는 라거 타입 수제맥주로 100% 몰트에 노블홉(Noble Hop)을 사용했다. 생산은 오비맥주의 맥주 생산



기술을 접목한 수제맥주 협업 전문 브랜드 KBC(Korea Brewers Collective)가 맡았다. 노르디스크 특유의 베이지 컬러에 브랜드 로고인 북극곰을 캔 전면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GS25는 2018년 수제맥주 랜드마크 시리즈 1탄 '광화문에일'을 선보인 데 이어

'제주백록담에일', '경복궁에일' 등을 내놨고, 최근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금성맥주'도 출시하는 등 편의점 수제 맥주 마케팅의 선봉에 서있다.

하지만 현재 편의점 수제 맥주의 최강자는 CU가 판매하고 있는 '곰표 밀맥주'다. 이 제품은 2017년 청와대 호프 미팅 만찬주인 '강서'로 유명한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내놓은 수제 맥주로 편의점에서는 CU에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선보였다.

편의점에 풀리자마자 초도 생산물량 10만 개가 3일 만에 완판됐고, 다시 일주일 만에 30만 개, 5개월 만에 100만 개, 12월 150만 개를 돌파하며 화제를 낳았다.

특히 이달 초에는 카스와 테라, 하이네켄 등 모든 맥주를 제치고 CU에서 맥주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신세계인터내셔널 '연작' 중서 잇단 러브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이 중국 MZ세대 공략에 나선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브랜드 '연작'은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메이투, 틱톡, 판뒤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작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2018년 론칭한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 2019년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 전 초 컨센트레이트, 백년초&우질두 수분 크림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연작은 이달 중국 최대 뷰티 앱 업체 메이투(meitu)와 손잡고 메이투씨우씨우

에 정식으로 입점한다. 이번 입점은 올 초 메이투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은 데 따른 결정이다. 메이투는 전 세계 20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여성의 90%가 메이투의 어플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연작은 메이투 외에도 채널 틱톡과 중국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 판뒤 등 다양한 업체의 러브콜을 받고 입점을 추진 중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테이퍼링’ 우려 크지만 증시 영향은 제한적

각국 정부 ‘코로나 돈풀기’ 10兆 달러 육박... GDP의 9.2%
美 인플레이 확대되면 달러화 강세에 신흥국 자금 유출 영향
“韓 펀더멘털 탄탄, 충격 흡수 가능” ‘안전 투자처’로 각광

“추가 재정 지출은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 모른다.”
“금리가 약간 더 올라도 미국 사회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다. 돈을 풀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시간표도 빨라지는 듯한 분위기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7일(현지 시각) 필라델피아·달러스 연은 총재 등 고위 인사 5명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의 자신감, 경제 위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회복 부진, 미·중 갈등 국면 등이 테이퍼링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에 짐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돈줄 조이기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실물 경기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테이퍼링, 증시추세를 바꾸지 못했다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하면 신흥국에 미치는 충격이 적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확대된 유동성이 현재 신흥국에 대거 유입돼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긴축 전환이 이뤄지면 과거의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 규모는 총 9조9300억 달러(약 1경1062조 원)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경우라 우려도 더 크다. UBS는 “최근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강세 등에 기인하는 나쁜 인플레이션”이라며 “신흥국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확대가 달러화 강세를 유발해 신흥국 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얘기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과거를 돌아보면

美 경제 주요인사 테이퍼링 관련 주요 발언 (현지 시간 기준) ※ 출처: 블룸버그, IBK투자증권

 리처드 클라리다 연은 부의장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일시적이나 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연준은 조치할 것 - 5월 17일	4월 의사록에 언급된 긴축을 위해 MBS 축소 고려 가능...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 5월 21일	- 최근 나타난 인플레이션 조짐을 간과하지 않을 것 - 대규모 부양책 시행으로 경제 지형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책 결정자, 유연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 5월 24일	- 추가 재정 지출은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 다소 올라야 할지도 - 6월 6일

테이퍼링이 실행된 2014년보다 직전 해인 2013년에 충격이 컸다.

2013년 5월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짐을 썼다. 하지만 이후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증시가 상승세를 탔다.

KTB투자증권이 과거 유사 테이퍼링 시점을 기준으로 미 증시 추이를 살펴본 결과, 1·2·3차 테이퍼링 종료 관찰구간 3개년 동안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1·2·3차 테이퍼링 시점 기준(100포인트 기준) 직전 1년을 포함한 전체 3년 기간(이하 전체 3년) 동안, 주식시장 퍼포먼스 평균값은 10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테이퍼링 종료 후 2년 동안의 주식 시장 수익률은 -3.6%를 기록하기도 했

다. 하지만 직전 1년을 포함한 전체 3년 기간으로 넓혀보면 수익률은 17.7%로 뛰었다. 2차 양적완화(QE2) 직후 2년과 전체 3년 수익률은 각각 4.8%, 15.0%를 기록했으며 3차 양적완화 역시 각각 6.0%, 8.5%로 상승 추세가 지속됐다.

◇한국시장은 안전 투자처=양적완화 축소는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아닌 장기 추세 상승의 초기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역시 최근 미국 경제의 견조한 경기회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6.4%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도 충족시키기도 했다. 커지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올 2분기에는 두 자릿수를 예상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5.8%(4월)까지 하락한 실업률은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시장에선 현재 양적완화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로(0)% 수준의 실질 금리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나.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한국의 기초체력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선 한국 증시가 안전한 신흥국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기대감을 더한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로 갈수록 테이퍼링이 공론화될 것이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기 테이퍼링 이슈는 단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수준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별산업이나 기업 측면에서 명암 차이가 예상된다. 김경훈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테이퍼링 구간 동안 경기 소비재와 IT는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반면, 금융과 에너지는 시장을 밀도는 모습이었다”면서 “다만 증시를 지배하는 매크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분할’ 발표한 SKT·만도 주가 ‘희비’

통신·지주사로 쪼갠 SKT, 장중 52주 최고가 터치
자율주행 물적분할 만도 11% 하락 “저가매수 기회”

사업재편을 통해 취약한 부분은 버리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만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때 주력사업이었어도 미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면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중점 사업에 역량을 쏟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특히 압도적 시장지배력으로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기업은 수시로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쪼개고 합치기’ 전략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10일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신설회사 SKT 신설투자(가칭)로의 인적분할을 택했다. 전날 만도는 기존 자동차 사업부에서 자율주행(ADAS) 사업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분할’ 발표 뒤 양사 주가 방향은 정반대였다. 인적분할을 택한 SK텔레콤은 이날 장중 전일 대비 3.66% 상승 52주 최고가를 터치한 반면 물적분할한 만도는 10% 넘게 빠졌다.

10일 SK텔레콤 주가는 전날보다 0.15% 상승한 32만8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만도는 11.17% 하락한 6만 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비중 증가로 무선 통신 본업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기업 분할을 통해 각 자회사들도 저마다 제값을 받기 위한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확장성이 높은 티맵모빌리티의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분할에 따라 존속회사는 AI,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신설회사는 반도체·ICT 투자 영역에 집중하게 된다. 신설회사는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무대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만도의 주가하락은 주주까지 희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를 보면 기존 주주 관점에서 ADAS 사업의 가

치가 희석될 수 있다.

전날 만도 이사회는 ADAS 사업을 분할해 신설 법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가칭)를 설립했다. 만도는 기존 새시 사업부는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ADAS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할 이후 존속회사 만도(EV 솔루션·기존 사업)는 MMS(자율주행·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 차원에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성장성 높은 신설법인의 자금조달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존속법인이 중간 지주회사처럼 여겨져 할인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존속법인도 새시 전동화를 통한 비교적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물적분할은 불편하고, 일시적 주가 조정도 당연하지만, 실적 개선 방향이 명확한 지금, 단기 주가 낙폭 확대는 매수 기회로써 작용할 수 있다”며 “확실한 것은 실적 방향성인데, 당면한 2분기 실적과 다가올 하반기와 2022년 연간 실적 모두 나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백신 접종률 늘자 연기금 ‘엔터주’ 담는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중 3개
오프라인 행사 실적 개선 기대

연기금이 엔터주를 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중 3개는 엔터주였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JYP Ent.로 400억 원을 순매수했고, 2위는 CJ ENM 355억 원, 3번째로 와이즈엔터테인먼트를 323억 원, 4위로 에스엠을 282억 원 순매수했다. 엔터주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지난 1분기 실적 개선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콘서트와 투어 등을 통한 매출 발생은 사실상 전무했지만, 주요 아티스트의 음원 및 앨범 판매를 통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콘서트 투어 중단에도 MD 및 온라인 콘텐츠 등의 부가 매출원을 확대하며 실적 성장세를 유지했고, 확대된 매출원은 백신 접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만큼 콘서트 투어 재개는 단순한 영업 정상화가 아닌 실적 업사이드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아이오케이처럼 진행능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많은 엔터사들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 “아티스트가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 엔터테인먼트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사로 엔터사와 아티스트의 수익이 좋아지고 이로 인한 부가매출이 창출될 경우 엔터테인먼트사의 입장에서도 실적 향상의 동력이 되는데 상정된 엔터테인먼트사 모두 실적 향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삼성증권, 분리과세 혜택 전용계좌 신설

삼성증권은 11일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업계 최초로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

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계좌는 개인투자자만 개설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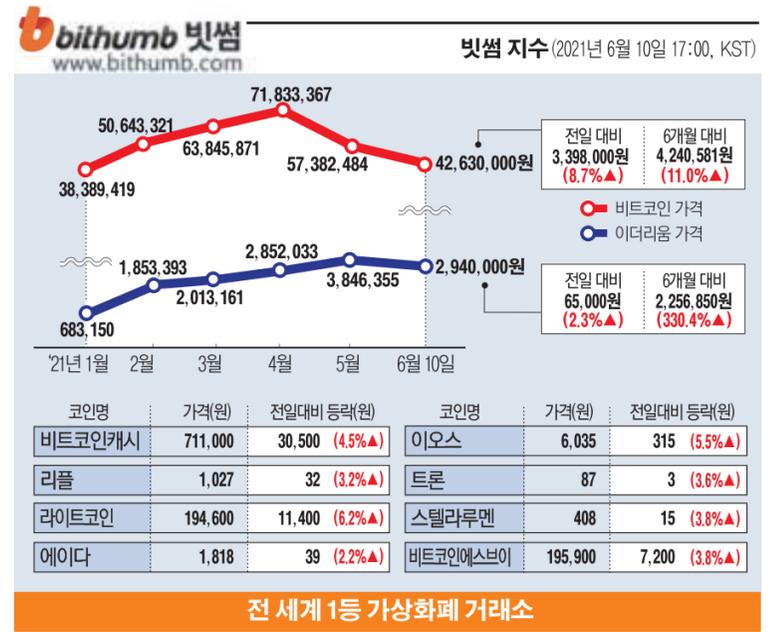
또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계좌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이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공모투융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자산을 투자해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맥쿼리인프라’가 대표적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는 국내 민간 인프라펀드회사로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이 운영하는 사회간접투자자본펀드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백조’로 거듭난 미분양 주택, 이젠 웃돈 붙었다

1년새 미분양관리지역 10곳 해제, 미분양 주택 73% 감소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잡자” 대출·전매 쉬워 유주택자 매입

옛 미분양 관리지역 내 아파트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미분양됐던 아파트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고민하지 않아도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7개 시·군이다. 지난해 같은 달(17곳)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0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증가로 지역 주택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어 신규 분양을 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HUG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줄어드는 건 미분양 높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그만큼 늘어서다. 주택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미분양 주

택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분양 주택이라도 잡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은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기에 틈새 수요도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5월 3만3894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4월 1만5798가구로 53% 줄었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소진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도 빠르다. 1년 만에 미분양 주택이 73% 감소(1만8428가구→4914가구)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대부분 부동산비(非)규제 지역이어서 대출 규제 등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뺀 대부분 단지가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같은 미분양 주택이라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장만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뜻이다.



옛 미분양 관리지역에선 골치를 썩이던 미분양 단지 중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합덕우강 유타유블레스’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은 최근 시세가 3억4400만 원을 호가한다. 원래 분양가(2억6400만 원)에서 8000만 원 웃돈이 붙었다. 지난해 말 168가구에 달했던 이 아파트 미분양 주택도 올 4월 76가구까지 줄었다.

당진 지역 다른 아파트도 미분양 주택을 모두 털어냈거나 남아 있더라도 전매 프리미엄이 꽤 붙은 상태다. 지난해 말 1042가구이던 당진시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말

410가구로 절반 넘게 줄었다. HUG가 지난달 당진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아직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 안동시 용상동 ‘안동용상 품림아일랜드 리버파크’ 전용 84㎡형 분양권 호가는 최근 4억 원까지 올랐다. 원래 분양가(3억7000만 원)보다 3000만 원 비싼 값이다. 올해 초만 해도 청약 당첨자들이 분양받은 값 그대로 분양권을 되팔았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HUG는 안동시에서 미분양 우려가 상당히 해소됐다고 본다.

다만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기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던 미분양 주택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에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시장 상황이 변수다. 부동산 시장에선 외지 투자자를 미분양 주택 소진 공신으로 꼽는다. 이들은 전반적인 주택 경기나 세계 등에 실수자보다 민감하다. 투자 환경이 변하면 미분양 주택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지난달 도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지 분양 물량이 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탓이다.

여영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소진되는 흐름”이라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건 다른 단지보다 뒤쳐진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개 지역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규모로 4가지 핵심 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변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었다. 시는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부동산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2020년 6월 22일)과 지정 후(2020년 6월 23~2021년 4월 22일)를 비교해 볼 때 4개 동의 총 부동산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시는 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새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 분양가의 2배까지 뛰어

분상제·실거주 의무에 치솟아 전세 물량 감소·월세화에 품기

이달 입주하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 (사당3구역 재건축 아파트·514가구) 전용면적 84㎡형 전세 시세는 최고 16억 원에 달한다. 2018년 분양 당시 동일 면적 분양가가 8억1300만~8억9900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의 2배에 육박한다.

통상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세 매물이 늘어 전셋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주변 전셋값까지 끌어내린다. 그런데 최근 실입주하는 입주인들이 늘면서 이런 ‘입주장’ 효과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새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의 두 배 수준으로 육박하는 건 이례적이다.

입주를 코 앞에 둔 서울·수도권 새 아파트 전셋값이 전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기존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데다

서울·수도권 주요 입주 아파트(6월 예정) 전셋가격 (단위: 원)

위치	단지명	가구수	분양가(전용 84㎡기준)	최근 시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514	8억1300만~8억9900만	15억~16억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더샵캐슬	941	4억6950만~5억2910만	7억5000만~8억5000만
경기 성남분당구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	1223	7억7000만~8억6000만	12억~13억

* 출처: 부동산 중개업소 및 각 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전셋값을 더 밀어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요동치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울어들어 계절적 비수기와 가격 급등 피로감 등으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을 더 사는 임차인(세입자)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전셋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전셋값 통계를 보면 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74% 올랐

지만 지난달엔 0.19%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랐다.

서울에선 전셋값이 분양가 두 배 안팎으로 뛴 경우도 있다.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이 위치한 동작구 전셋값은 옆동네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2120가구)의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첫 주 포함(0.0%)를 보였던 이 지역 전셋값은 마지막 주 0.1%까지 오른 뒤 이번주 0.13% 급등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1490가구)가 이주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엔 전셋집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

은 입을 모았다.

집값이 연일 급등세인 경기도 의왕에서도 새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2018년 분양했던 ‘의왕 더샵 캐슬’ (941가구) 전용 84㎡형 전세 호가는 5억2000~8억5000만 원선이다. 분양가(4억6950만~5억2910만원)를 크게 뛰어넘는다.

경기 판교신도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1223가구) 전용 84㎡형도 전세 시세가 8억~14억 원선으로 분양가(7억7000만~8억60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정부 규제도 전셋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으로 전세 매물 감소가 우려된다”며 “하반기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대규모 이주가 예정되어 전셋값은 비수기에다 강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정부청사 부지 개발 철회, 과천 집값에 기름 붓나

며칠 새 호가 수천만원 상승

경기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슈르’ 전용면적 59㎡형은 지난 7일 14억700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동일면적은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일 이전까지만해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14억~14억50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새 2000만~7000만 원 오른 금액에 매매됐다.

과천시 갈현동 ‘과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전용 84㎡형도 4일 이전까지 17억8000만~18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하지만 10일 현재 같은 평형의 매물은 18억5000만 원 수준으로 5000만 원 오른 상태다.

과천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정부과천청사 주택 공급 백지화로 인한 주택 공급 불안감이 최근 불붙은 과천 집값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과천지역 아파트 매물은 크게 줄고 있지만,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부

과천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매물 건수는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백지화가 발표된 4일 기준 667건에서 9일 현재 619건으로 5일 새 48건 줄었다. 한 달 전(5월 9일·780건)과 비교하면 161건 급감한 수준이다.

과천시 별양동 W공인 관계자는 “안 그래도 매물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선 매물이 씨가 마른 것 같다”며 “이렇다 보니 이곳 집값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지난해

8·4 대책)을 지난 4일 철회했다.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결국 공급 계획을 백지화한 셈이다. 대신 정부는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대체지에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정책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향후 대체되는 공급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느냐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힘을 잃으면서 이 일대 집값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천 일대 입주 물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5553가구가 집들이에 나서지만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504가구, 2023년에는 1491가구에 불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밖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도심 내 재개발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및 위례~과천선 건설 등 호재도 많아 과천 집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ijy0403@

세종시 ‘특공’ 결국 폐지 수요자, 행정소송 맞대응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 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여당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행복도시 이전기관이 아닌 데도 세종에 유령청사를 지어 특공 혜택을 누리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게 결정적이었다.

특공을 통해 받은 아파트를 팔아 차익으로 수익 원을 챙기는 ‘특공 재테크’도 여론 악화에 한몫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김학의 재판 다시... 대법 “증언 반복 검증해야”

대법원이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하면서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동산 사형업자 최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1

원심 깨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보석 허가돼 8개월 만에 석방
檢 “증인 회유·압박한 적 없어”

심과 항소심 증인신문에 앞서 최 씨를 사전 면담한 후 최 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은 점점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최 씨가 연예인 이들이 구설에 올릴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

‘김학의 사건’ 재수사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2018년 4월 24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 태국 방콕으로 심야 출국 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25일	검찰과거사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당시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권고
29일	여환섭 청구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수사단’ 출범
5월 9일	김 전 차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13일	수사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16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6월 4일	수사단,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 전 차관에 무죄 선고 성접대 혐의 공소사유만으로 면소 판결
2020년 10월 28일	서울고법 형사부 김 전 차관에 뇌물 혐의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선고. 성접대 혐의 면소 판결 유지
2021년 6월 10일	- 대법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파기환송 (증인 신빙성 의심) - 성접대 혐의 면소 확정



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최 씨의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이상 유죄 판결을 확정하려면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준현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그는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유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결정을 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유가 지나면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종용 기자 deep@



10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해물 아래에 깔려 차체가 납작하게 눌린 시내버스를 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는 인재 ‘잠원동 사고’ 판박이

2019년 발생 이후 규제 강화했으나 유사한 사고 재발
文대통령 대책마련 지시... 정몽규 현산 회장 공개사과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과거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했다. 당시 사고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철거) 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는 강화됐지만 결국 같은 사고는 또 발생했다.

2년여가 흐른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앞 정류장에 막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버스에서 구조된 17명 중 9명이 숨졌으며,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도 해체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청은 시민들의 제보 영상과 사진을 기반으로 정황상 철거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날 광주 동구 사고현장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전국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행사를 맡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재영 기자 lry0403@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관리대상범죄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월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의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당시 수사 검사 2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

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사세행이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용 기자 deep@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총수 아닌 삼성 전체 이슈 검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자가 “해당 문건은 총수 일가의 이슈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를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한 씨가 삼성증권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중 ‘그룹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변호인이 “프로젝트G 보고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측면보다는 삼성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에 대한 그룹 지분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한 씨는 “그렇다. 그룹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던 것이 문건의 주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검찰 조서에 나온 총수 일가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던 것은 부수적인 측면 같다”고 하자 한 씨는 “맞다”고 진술했다. 한 씨는 프로젝트G 보고서가 특정 개인의 이슈를 담은 내용이 아닌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한 씨는 보고서의 G 표기의 의미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버넌스’라는 뜻으로 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프로젝트G 작성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인사평가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대법, 한국지엠 근로자 일부 승소
휴가비·개인연금보험 등은 제외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지엠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는 기본연봉은 고정급으로 직위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업적연봉을 차등지급했다. 업적연

봉은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100%를 추가해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1심은 “업적연봉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며 휴가비 등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매월 지급한다”며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유배지 고요한 산방 '조선실학의 태실'이 되다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1801년 강진 동구 밖 주막집의 웅색한 뒷방에 몸을 의탁하는 것으로 귀양살이를 시작했다. 처음 그에게 쏟아진 건 냉대뿐이었다. '서학을 믿는 대역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를 사람들은 전염병자 대하듯 배척했다. 유배의 시작은 그렇게 비참했다. 그러나 기이하도록 강인한 다산은 운명의 농간에 굴종하지 않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다. 유배의 고난을 학문과 정신의 도약대로 삼아 오히려 일취월장했다.

강진군 도암면 굴동마을 만덕산 기슭에 있는 다산초당. 다산은 강진에서의 귀양살이 18년 중 10년을 이곳 다산초당에서 보냈다. 사무치는 고독을 피할 수 없는 게 유배다. 고결하고 개결한 풍모를 유지한 다산이었으나 때로 서러워 대성통곡을 했던가 보다. 이런 시구(詩句)가 있다. '취하여 산에 올라 목메어 우니/ 울음소리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지네.'

그러나 다산은 자폐적 감상이나 자기연민에 젖어 지낼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잠시잠깐 외로움과 설움에 잠길망정, 그건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에 불과했다. 그는 유배의 불운을 공부로 집어삼켜 해치웠다. 책상다리를 하고 일단 서책 앞에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 모른 다산이었다. 오죽했으면 방바닥에 눌러 닳은 복숭아씨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났겠는가.

이런 공부벌레가 드물다. 이런 기적적인 학문의 포식자가 다시없다. 이토록 초인적인 정진을 통해 다산은 이곳에서 학문과 사상을 정점까지 끌어올렸다. 다산초당은 이른바 '다산학'의 산실이며, '조선실학'의 태실이다. 불후의 명저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를 비롯해 자그마치 500여 권

다산 정약용이 18년 귀양살이 중 10년 보내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권 이곳서 집필 동암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보정산방' 편액 풀 한포기 괴석 하나에도 대학자의 숨결이



에 이르는 갖가지 경칩과 문집이 이곳에서 생산되거나 기획되었다. 그 다산성과 품질의 우수성은 세상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산이라는 거목의 전모를 헤아리기란 어쩌면 가당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던가. '다산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다산을 아는 사람도 없다.'

다산초당은 원래 고산 윤선도의 가문인 해남 윤씨네 소유의 산정(山亭)이었다. 그런데 다산의 어머니가 윤선도의 증손인 공재 윤두서의 손녀였다. 이런 연고로 다산이 다산초당에 거처하게 됐던 거다. 다산초당은 중앙에 있는 본채 초당과 좌우편에 있는 동암과 서암으로 이루어졌다. 동암에는 '보정산방'(寶正山房)이라 쓴 편액이 있다. '정약용이라는 보배가 머문 산방'이라는 뜻을 지닌 이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썼다. 다산보다 24세 연하였던 추사는 경학을 배우거나

차를 나눔으로써 다산과 교제하며 지냈는데, 편액으로 흠모의 마음을 전한 셈이다.

유배라는 궁지에 몰렸으나 다산은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당대의 걸출한 인물들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특히나 절친하게 지낸 승려 둘이 있는데, 저 아래 해남 두륜산 일지암에 머물렀던 초의선사와 여기 만덕산 백련사의 주지였던 혜장이 바로 그들이다. 다산초당은 이렇게 학문 전당이자 담론과 우정이 오고간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진흙을 딛고 올라오는 연꽃처럼, 고통스러운 유배를 차라리 지양으로 삼아 삶다운 삶의 정상으로 날아오른 다산의 행장이 선연하게 서린 유적지라는 점에서 성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다산초당의 특별한 가치가 또 하나 있다. 다산이 이곳에 조선 원림의 상징이라 일컬을 만한 정원을 조성했다는 게 그렇다. 유배객이 정원? 언뜻 낯설게 들린다. 다산은 수원의 화성(華城)을 설계한 건축공학자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초당 일곽의 조경에 무신경했을 리 없다. 유배의 갑갑한 심사를 해갈하기 위해서라도 정원 조성은 필요했을 테다. 다산은 우선 연못을 파고 뒷산의 물을 끌어들이며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 연못 가운데에는 갯가에서 모아 가져온 괴석들로 석가산(石假山)을 만들어놓고 '진짜 산보다 더 낫다'고 흠족해했다. 연못 주변엔 관상수를 심고 곳곳에 화단을 만들어 화초를 가꾸었다. 다산의 시를 보면 초당에 심은 식물 수가 30종에 달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원이 다산 생시의 바로 그 정원?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와 비교하면 더러 다르다. 예컨대 원래 연못은 상지와 하지 두 곳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뿐이다. 초기였던 집들을 기와집으로 복원한 건 내내 입길에 오르고 있다.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답사 Tip
다산초당 들머리에 다산박물관이 있다. 다산의 친필 간찰과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다산초당에서 천년고찰 백련사로 이어지는 오솔길도 빼어나다. 다산이 자주 걸었던 길이다. 거리는 약 1km.

OMAR SHARIF

PARIS

고객과 함께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오마샤리프화장품(주)



고기능성 스킨케어 전문 제조 기업,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자연에서 얻은 성분에 차별화된 기술을 담아
주름, 미백, 트러블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찾은 실크프로테인과 꿀벌에서 얻은 벌침액을 비롯, 돈태반과 누에실샘 등
오마샤리프화장품만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MP와
화장품 국제인증 ISO-22716을 획득,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최적의 생산 환경에서 최상의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합니다.

- 사업분야 : 화장품원료 및 생산 연구개발 / 의·약외품 개발 및 생산 / 화장품 브랜드 개발 / 화장품 OEM, ODM 생산
- 주요 생산 제품 : Re20 / Re20링클 / Re20옴므 / 이디엄옴므 / 랑스크림 / OS실크 / 테비안 / 클렌징폼 등



OMAR SHARIF
PARIS

“건설사가 웬 라방? 리스크 있어도 소통해야죠”

<라이브방송>

‘자이TV’ 운영하는 정명기 GS건설 마케팅 담당 팀장

유튜브 채널 경쟁사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라방’으로 차별화
말실수로 고객 항의, 방송 패러디했다 표절 지적받아 수정도

“인기 있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려면 3~4시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장 인원도 제한된다. 하지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하 라방)에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2만 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해 시청할 수 있다. 그야말로 유튜브니깐 가능한 것이다.”

정명기 GS건설 마케팅 담당 팀장은 유튜브 채널 ‘자이TV’만의 강점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이TV 채널은 2017년 6월 개설됐다. 올해로 4년이 지난 셈이다. 10일 현재 구독자는 34만 명을 넘어섰고, 조회 수는 총 1733만 뷰에 달한다.

이처럼 자이TV는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건설사 중 구독자 2위인 현대건설 ‘힐스 캐스팅’ 채널 15만 명, 3위인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이프’ 채널 14만 명과 비교해도 구독자가 두 배 넘게 많다. 그렇다고 해서 자이TV 채널이 먼저 개설된 것도 아니다. 힐스 캐스팅 채널은 2015년부터 활동했다. 푸르지오 라이프 채널은 2011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자이TV의 구독자가 이처럼 경쟁사보다 유독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 팀장은 “타사 유튜브 채널과 가장 차별화를 둔 것이 바로 라방이다. 라방에 힘을 준 것은 그

를 회장님(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영향이 컸다”며 “작년 7월 그룹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래서 회장님 앞에서 유튜브 운영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님이 흡소핑을 운영한 적이 있다 보니 라방에 대해 강조하셨다. ‘라방이 한 번 보여주거나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있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훨씬 좋다’고 했다”며 “타사는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라방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전했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물론 리스크도 있었다. 정 팀장은 “한번은 모델하우스에서 라방을 하는데 현장에서 다용도실 내 세탁기를 안내하면서 ‘그 위에 건조기도 놓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천장에 점검구가 있었는데 건조기를 올리면 그 점검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방송 이후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도 있었다. 최근에는 모 방송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직원들이 동자신과 선녀신 분장을 절묘하게 하고 나와서 주택 청약이나 분양에 관한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정명기 GS건설 마케팅 담당 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표절했다고 공문이 왔다. 결국 코너 제목을 바꾸고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 팀장은 라방은 계속 진행해야 하는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고객과 소통의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자이TV는 코로나19 이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비슷한 환경에서 라방을 이어가려고 노력한다. “통상 금요일 낮 12시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은 시간에 라방을 진행한다. 비록 모델하우스는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방문한 것처럼 입구부터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이 보는 순서대로 내부를 상세히 보여주고 질

의 응답을 이어간다. 특히 분양소장들이 나와서 라방을 진행하고 소통하다 보니 많은 고객이 좋아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자이TV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 낼 각오다. 이를 통해 ‘자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을 만들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자이TV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이다.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가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자이TV를 믿고 시청해 주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4선의 노웅래 의원이 내정됐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18일께 이사회를 열어 노 의원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년 임기 가운데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새 지도부 출범에 따라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제과색이 열리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전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국회 과방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타이어산업협회장에 정일택 사장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10일 2021년도 5월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제29대 회장으로서 정일택 금호타이어 정일택 사장을 선출했다.



정일택 사장은 1988년 전남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고분자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KTG법인장, OE영업본부장 및 품질본부장(전무),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사장을 맡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거래소-경기도, 스타트업 지원 협약

한국거래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거래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의 M&A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의 M&A를 활용한 기업성장 및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기업과의 M&A 매칭, 교육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홍승욱(왼쪽 두 번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과 유승경(세 번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파견 복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홍인기

부음

▲황철수(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제13대 국회의원) 씨 별세, 황명희·선희·명근(사랑마루요양원 이사장)·명준(주제세고문)·문희 씨 부친상, 윤향균·하옥(효송학원 이사장) 씨 장인상 = 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2-3410-6903

▲고숙희 씨 별세, 이승섭(롯데쇼핑 홍보팀 과장) 씨 모친상 = 10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62-527-1000

▲남부원 씨 별세, 남정일(대구도시공사 금호위터폴리스사업단장)·정수·순자·순옥·정경 씨 부친상 = 10일, 경북 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10-3828-9502

▲박윤창 씨 별세, 박주경(KBS 뉴스광장 앵커)·주백(한국기후변화연구원 사무처장) 씨 부친상, 우수경(KBS 중동지구장) 씨 시부상, 김수용(대림산업 부장) 씨 장인상 =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장례식장, 발인 12일, 031-923-7000

국무2차장 윤성욱·과기혁신본부장 이경수

문 대통령, 장관급 5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창열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차장에 내정됐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의 임명 일자리는 14일이다.

송기춘 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으며 기본권과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거쳐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맡아 왔다. 현안 해결 능력과 소통능력이 뛰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수 과기부 과기



왼쪽부터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혁신본부장은 30년 이상 핵융합 현장과 국제기구 활동한 과학자다. 과학기술분야 전문성과 업무 추진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 위기 극복 등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 등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반부패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력, 신고자 보

호 강화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창원 인재개발원장은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제사회 정책과 인사 분야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남다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인재개발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 인재로 배출하는 산실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일환 기자 whan@

금호타이어, 서울 초등학교에 교실 숲 조성

트리플래닛과 협업... “쾌적한 학습 환경 지원”

금호타이어가 트리플래닛과 협업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숲 조성 사업에 나선다.

9일 금호타이어는 서울 관악구의 조원초등학교에서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교실 숲’ 현판 전달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 교실 숲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실 숲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된 환경교육 키트와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정화 키트 2가지로 이뤄져 있다. 학생들은 환경교육 키트를 통해 직접 화분에 식물을 기르고 반려나무 양육일기를 작성해 사업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 키트의 반려나무는 NASA에서 선정한 울마, 황금사철 등



금호타이어는 9일 서울 관악구의 조원초등학교에서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교실 숲’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서진수 조원초등학교 교감,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 석승하 조원초등학교 교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12가지 공기정화 식물로 구성됐다. 교실 숲은 트리플래닛 식물관리사의 정기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실 숲 조성으로 연간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2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욱 기자 woogi@

롯데,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 진단·치료 2억 기부

롯데의료재단·대한사회복지회에... 3년간 100여명 검진

롯데는 10일 저소득층 영유아의 발달 상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롯데의료재단과 대한사회복지회에 전달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석현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이봉철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윤연중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 고수찬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참석했다.

롯데는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들과 신생아 때부터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 지속적으로 발달 상태를 점검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의 전문 의료진과 인프라를 활용해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여 명의 아동들이 발달 검진을 받았으며, 그중 70여명은 발달 지연 치료를 병행했다. 올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발달 장애 특성상



왼쪽부터 윤연중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 김석현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고수찬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이봉철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기존 참여 아동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핸즈온 봉사활동과 연계해 직접 만든 유아용품들을 아동들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월을 북한이 대화를 놓치면 안되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북한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리뷰하면서 대화의 시기와 방식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본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소통이 이뤄졌다”고 언급하였다.

6월 12일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최초의 만남이었고 공동성명으로 나타난 정상 간 합의는 새로운 양국 관계의 이정표로서 기능했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북한은 미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공동성명 3항에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다. 북미 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 노력을 해서 일구어낸 성과였음을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렇다 할 북미 간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휴지조각처럼 날아갈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부터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을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에 줄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주년

차게 설명해 왔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서명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합의 이상의 총론적 합의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양 정상 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과 성 김 대사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은 북미 간 총론적인 기싸움 없이 바로 각론적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월을 북한이 대화를 놓치면 안되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북한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리뷰하면서 대화의 시기와 방식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본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소통이 이뤄졌다”고 언급하였다. 사안별로 공격성 평가를 하겠지만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대화 재개의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남 대외 비난을 비교적 자제하고 있는 것도 대결보다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에 동의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소집한 당 전원회의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가장 절박한 것은 북미관계도 남북관계도 아니다. 정권적 사활을 걸다시피 했던 지난 당 대회를 통해 제시된 과업이 제대로 관철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절실하다. 6월 당 전원회의 소집도 상반기 경제 부문 공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의 추진 일정을 마련하는 정해진 수순이다. 혹여 대외 관계 메시지가 없거나 약하더라도 소원해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김여정 담화를 통해 수면 위에서는 기싸움을 하고 수면 아래에서는 접촉과 대화의 메시지를 발산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과의 대화 모색이 6월이 될지 아니면 7월, 늦어지면 하반기에 전개될지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자립형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북한이 내부정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외정세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의 움직임에 제약하는 내부 상황, 코로나 국면, 중국과의 소통 등을 종합하여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는 시점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험적 사례에 비춰 보면, 북한이 정중동속에서 돌연 맹렬한 비난을 하거나 긴장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향한 한미 간의 첫 단추는 이미 잘 끼워졌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아직은 지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동이틀 무렵의 어스름처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다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CEO 칼럼

유 희 숙
1492피앤씨에드 대표
한국제도전중소기업협회장



최근 출판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란 책의 저자는 신형 변호사로,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 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로 법관 재임 용에서 탈락된 분이다. 그 전에 출간된 저서들과 SNS활동을 통해서도 그는 꾸준히, 법원 내부의 비리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 그윽하기 그지없는 이분의 이 변하지 않는 강건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궁금해하던 차, 이번 신간을 읽으면서 그 의문이 풀릴 수 있었다.

그것은 최고 엘리트로 살아온 법조인이 농부의 시간을 보내며 자연에 순응하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였다. 보통 강박관으로 ‘공정’을 얘기하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는 ‘공정’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진짜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법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는 그를 만나게 되면서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현행 대학 입시

제도과 더불어, 사회적 사다리 건너차기의 대표적 사례가 현 로스쿨 제도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의 사법 신뢰도가 꼴찌라는 점 또한 심각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하여 현상을 들여다보면 온갖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문장은 특히 너무 뻥속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었다.

지난 5월 28일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2만3천명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실전창업 준비금과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청년 창업기업대상 정책자금을 22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한다. 더욱이 총 4대 분야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 제도전이 포함돼 있다는 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최대 6억원까지 보증 공급하겠다는 점과 성실실패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을 90프로에

진짜 별의 순간

서 95프로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보고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보증기관의 재보증 금지 조항에 대한 삭제와 채무 기록의 원천적인 소각 대책 없이 보증 대출 규모를 늘리고 채무 감면 비율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회 경험도 아직 미천한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지원이란 명목의 달콤한 독약을 주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청년창업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며칠 후인 6월 2일에는 정부 부처들과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의 현장간담회 보도가 있었는데, 직전에 발표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무색하게 이들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이 얘기한 건, 청년 창업자들이 물어볼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창업 전반적인 멘토링을 받을 곳이 없고 정부기관을 만나는 것도 힘들며, 창업패키지 과정에 포함돼 있는 멘토링은 대부분 형식적이다 보니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도 어떤 정책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학자들의 이론과 그 이론의 논리적 관계를 누가 더 명징하게 입증하고 있는가’에만 서로 열을 올리는

것을 목도한다. ‘이렇게 힘든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설득하는 기득권자들은 구경도 할 수 없다.

요즘 청년들과 가까이 대면할 일이 많은데, 제도전 기업가들의 분노는 쉽게 표출되는 데 반해 생각 이상으로 분노 지수가 높은 청년들의 분노는 깊숙이 감춰져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며 짹짹 놀라곤 한다. ‘공정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세상’은 늘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활화산이다. 잠재위된 불씨를 안심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2019년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방시혁 대표가 ‘나를 만든 건 분노’라는 축사를 직접 들으며 많은 공감이 된 적이 있다.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비축해 둘 결정적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들여다볼 줄 아는 기득권자들의 변화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현재는 힘들고 우울할 뿐인 청춘들이 언젠가 꼭 이 세상을 치고 올라가는 진짜 ‘별의 순간’을 맞게 될 때라는 것을 믿는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저 베이컨 명언
“이 세상의 이치는 수학 지식 없이 알아낼 수가 없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권위는 지식을 줄 수 없다고 해 학문상의 확실한 지식으로서 수학을 중시했다. 근대과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는 ‘경이(驚異)의 박사’로 불리었다. ‘대서(大書)’와 ‘소서(小書)’를 남긴 그는 오늘 세상을 뒀다. 1214~1294.

☆ 고사성어 / 산시산 수시수(山是山水是)
크스님 다섯 분이 쓴 금강경 오가해(金剛經 五家解)에 나오는 야보(冶父) 스님의 시에서 비롯됐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대체 부처님은 어디에 따로 계신다는 말인가(山是山水是水 佛在何處).” 1980년대 초 권력을 잡은 군부가 해인사(海印寺)에 칩거하던 성철(性徹) 선사(禪師)에게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 종정(宗正) 취임을 요구했다. 수차례 거절하던 성철이 불교 통합을 위해 요구를 받아들이며 취임사에 이 시의 앞부분만 인용해 유명해진 말이다.

☆ 시사상식 / 특허 괴물(patent troll)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특허 파파라치, 특허 해적, 특허 사냥꾼이라고도 불린다.

☆ 신조어 / 업글인간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사람을 뜻한다.

☆ 유머 / 산뜻한 복수
명품숍에서 몸에 딱 맞는 포피코트를 산 여인이 직원에게 코트를 넘겨주며 “포장해주세요. 남편 생일 선물이에요”라고 했다. 직원이 “사모님, 근데 이건 여성용인데요?”라고 반문하자 그 여인의 대답.
“지난달 내 생일 날에 그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피카소 그림을 선물했거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고대영 국제경제부/kodae0@



IAEA의 정치질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달 본지와 얘기를 나누 리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마치 고지를 선점한 후 타이틀 방어전을 하는 듯했다. 웃으며 얘기하면서도 말에는 가시가 가득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양자 협의체 추진에 대해 한영한다면서도 IAEA의 독립적인 활동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우리 관할”이라는 말로 쳐냈다. 그동안 많이 협력한 기구지만, 이번 이슈만큼은 빠지라는 식이다. IAEA가 알아서 할 것이고 자신 있다는 말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큰 우리 입장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IAEA가 추진 중인 국제조사단이라는 것도 애매하다. 한국 전문가를 포함하겠다는 면서 동시에 정치적이지 않은,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이야 한다고 한다. 말에 모순이 느껴진다. 한국 전문가가 팀에 들어가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지 보기 위함인데,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방류를 막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외교라면 차악도 고려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시민단체처럼 피켓만 들 순 없다. 일본과의 양자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하고 IAEA 조사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완전한 정보 공개 청구를 마무리짓는 게 시급하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팩스 (02)784-1003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사진영상팀 (02)799-6745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한 유 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부동산 패러다임 바꿀 것”

“부동산 전자계약은 ‘다방’이 광고 플랫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석입니다. 2년 동안 다방의 모든 역량을 전자 계약 시스템에 쏟아부은 만큼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한유순 다방 대표는 다방의 미래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방은 2013년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시작해 지난 8년간 급성장했다. 다방은 국내 대표 프롭테크(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부동산 산업) 기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될 정도다. 특히 원룸과 투룸 등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매물 정보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다방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투데이는 8일 한 대표를 만나 프롭테크 시장과 다방의 미래를 들어봤다.



한유순 다방 대표는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다방의 역할은 매물 검증과 정보 제공 등 서비스에 국한될 것이고,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방문 않고 매물 정보 파악

한 대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성화가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과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표는 “당장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집주인들은 집 계약 내역이 서류로 남고 전산상에 등록되는 것을 꺼렸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많이 활성화했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기조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므로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며 “해의 호텔 예약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앱으로 정보만 보고 예약하듯 부동산 거래도 전자 계약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방이 곧 시행할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대면·실시간 계약 서비스다. 전자계약 전용 매물은 임차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동영상, 3D 가상현실 영상 등)를 제공한다. 마치 호텔을 예약하듯 온라인으로만 매물을 본 뒤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호텔 예약과 엄연히 다르다. 원룸과 투룸 월세시장으로만 한정해도 보증금 수백만 원 이상을 거래해야 한다. 한 대표도 전자계약 시스템의 신뢰성 구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직원들도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성 구축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장은 전세가 아닌 월세, 원룸 위주로 시행해 시스템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인증·전자서명·타임스탬프 활용

다방은 전자계약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제거한다. 동시에 매물 사전 검증 및 임대인 인증을 거쳐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결국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방의 매물 검증 능력 향상과 차별화한 매물 정보 제공만이 살길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 활성화 호텔 예약처럼 온라인으로 체결 전월세 신고제 시행도 긍정 영향

큰돈 오가는 부동산 계약 부담 당장은 전세보다 월세·원룸 중심 계약 시스템 신뢰성 확보에 최선

중개시장 진출은 생각하지 않아 매물검증·정보제공, 중개사와 상생 광고플랫폼 넘어 종합부동산 지향

다. 그는 “철저한 매물 검증을 통해 집주인 등기부 등본 대조 등 모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것”이라며 “매물 하나하나에 다방의 역량을 집중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면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방의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이 중개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다방은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다방의 역할은 매물 검증과 정보 제공 등 지원 서비스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수수료, 기존 광고비용 수준 책정

그러면서 “다방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역과 범위가 한정돼 제공될 것이고 전국을 다 포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전자계약 시스템은 직접 중개업 진출이 아닌 IT 기술 지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수수료 역시 기존 광고비용 수준의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계약 시스템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 지원도 당부했다. 현재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계약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전자계약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6년 내놓은 전자계약 시범서비스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용률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 대표는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민간 전자계약 시스템은 편의성 등 성능이 공공시스템보다 더 낫다”며 “정부와 전자계약 관련 협업이나 민간 시스템의 표준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지·상가 등 향후 진출 분야 많아

한 대표는 다방의 미래에 관해 묻자 웃음과 한숨을 동시에 지어 보였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장 원룸뿐만 아니라 파도도 있고 토지, 상가 등 부동산만 놓고 봐도 진출할 분야가 많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이외에도 집 계약이 체결되면 이사나 청소를 해야 하고 인터넷과 케이블 TV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며 “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분야와 집과 관련된 다양한 IT 분야 등 진출할 영역이 아주 많다. 하지만 아직 다방이 갈 길이 먼 만큼 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장 5년 뒤에는 기존 원룸 중심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원룸 매매와 아파트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건물 분석 사업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5년 뒤에는 아파트 관련 사업 모델을 내놓을 시기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만든 다음 그 뒤 3년간 해당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는 전자계약 정보를 통해 사업 대상을 확인하고 전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다방의 정체성이 부동산 광고 플랫폼이었다면 미래의 다방은 종합 부동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철학과를 나온 뒤 게임사를 거쳐 다방을 창업했다. 그는 다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회사를 차릴 때부터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을 바꾸고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에 나온 전자계약 시스템은 월세 시대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대표는 “2년이 넘는 개발 기간 전자계약 시스템을 수십 번 뒤엎고 다시 만들었다”며 “다방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선 필요한 시스템인 만큼 이용자들이 애정을 갖고 많이 이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시설

가계 빚 폭증에 상환능력 악화, 커지는 긴축 공포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 가계와 기업의 빚 모두 국내총생산(GDP)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했다. 금리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해져 금리 상승 국면에서 경제 충격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로 2016~2020년의 5년간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87.3%에서 103.8%로 늘어 16.5%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G5의 증가폭은 6.4%p였다. BIS 기준 작년말 우리 가계부채는 1998조3000억 원이었다. 기업부채도 2016년 GDP의 94.4%에서 작년말 111.1%로 높아졌다.

소득보다 빚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점에서 심각하다. 우리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이 2015~2019년 사이 28.3%p나 증가한 반면, G5는 1.4%p에 그쳤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우리는 1.6%p 높아졌는데 G5는 0.2%p 줄었다.

BIS가 4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민간부채의 위험도에서 한국이 7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작년말 기준 ‘신용갭’인데, 우리나라가 18.4%p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2019년말에는 6.7%p에 그쳤다. 신용갭은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를 벗어난 정도로, 부채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저금리로 기업과 가계의 신용이 늘었고, 특히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가속화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변화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빚에 짓눌린 구조에서 통화정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은 이미 돈을 죄는 긴축(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도 잇따른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코 쉽지 않다.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편중돼 부동산 위기와 금리 인상에 취약한 문제가 가장 크다.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의 빚이 많이 늘어나 이들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단 긴축과 금리인상의 시동이 걸리면 추세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파장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해도 한계가 뚜렷하다.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형편없이 악화된 경제 체질이 최대의 위기 요인이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것이 부채상환 능력을 높이는 당연하고도 최우선적인 대책이다.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든 것 ‘고령가소년...’

‘고령가소년살인사건’이라는 영화 제목만 보고 추리극이나 범죄 수사물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영화는 한 소년의 삶을 통해 불안과 걱정과 좌절을 마치 관찰자의 시점에서 집요하게 보여준다. 이내 관객은 소년의 마음에 감정이입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1991년에 만들어졌으니 아주 클래식한 영화도 아니다. 당시 이 영화는 대만의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영화로 한국에 소개됐다. 선전 홍보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대만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서민의 생활과 애환, 현대 도시인의 우울이나 불안 등을 살피고 한 가족이나 개인이 전쟁 이후에 겪게 되는 아픔을 대만의 젊은 영화인들이 감지해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뉴웨이브 선두주자였던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였고 유수의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터라 나는 필사적으로 이 영화를 구해 보았다. VHS 테이프가 원본이어서 여러 번 복사를 뜨다 보니 나중에는 영어로 된 자막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런닝타임은 무려 4시간에 육박한다.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했다. 이 영화를 디지털 리마스터링 한 걸로 다시

보고 있자니 새삼 세상 참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960년, 대만 사회는 국공내전 이후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이 혼란으로 당시 청소년들이 아노미 현상을 겪으며 폭력에 의존하지만 어른이나 학교나 젊은이들에게 시선을 둘 여유가 없다. 의도치 않게 이 혼란에 휘말린 소년 샤오쓰(장첸)는 친구, 가족 그리고 좋아하는 소녀밍(양정의)의 문제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대만 역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던 실화를 영화로 옮긴 이 영화는 특히 아름다운 미장센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한 컷 한 컷을 프리즈하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완벽한 구도를 만든다. 사물을 걸쳐 찍거나 카메라를 픽스하고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 등은 임권택 감독의 연출을 연상케 한다.

인간의 삶 속에 오묘하게 숨겨 있는 비밀들을 충실하게 재현해 내고 있어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한 컷도 놓칠 수가 없다. 한번 명작에 도전해 보시라.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